

세상의 정의는 항상 변하며 그로인해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며 사람들에게 소망과 미래를 약속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9절

베이징 동계올림픽 안 본다!

CT,미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종교자유옹호단체 사역과 크리스천 동참 소개

2022년 중국 동계올림픽이 개막식을 포함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로 시작됐다. 가뜰이나 중국 선수만을 위한 편파 판정과 지나친 방역수칙 그리고 열악한 선수촌 식단 등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기독교인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 물론 개막식을 지켜본 1,600만 관객은 NBC에게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이전 최저치는 캐나다에서 열린 1988년 게임의 2010만이었다.

이러한 소식은 기독교인들이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한 것처럼 미국 정부의 주도를 따르고 보고된 중국의 위구르족, 기독교인 기타 종교 및 소수민족에 대한 침해에 대응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것을 촉구한 오픈도어스(Open Doors USA)와 같은 종교자유옹호단체를 고무시키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

부의 2022년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들어본 미국인 중 약 3분의 2가 이에 동의한다.

이번 설문에는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알고 있는 백인 복음주의자 10명 중 6명 이상, 백인 주류 개신교인, 흑인 개신교인, 가톨릭교도, 종교와 무관한 미국인이 포함된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34%), 백인 주류 지지자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68%). 전반적으로 미국 종교 단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Boycott China's Winter Olympics? Many American Christians Agree Pew survey finds majority of evangelicals and Catholics support US diplomatic boycott. Religious freedom advocates want ordinary believers to abstain also).

퓨 리서치는 또한 미국인들에게 중국을 주로 미국의 파트너, 경쟁자 또는 적으로 보는지에 물었다. 절반은 중국을 경쟁자로 분류했고 1/3은 적으로 분류했다.

미국 기독교인 중 백인 복음주의자의 56%가 중국을 적으로 분류해 대다수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한 유일한 종교인구가 됐다. 이에 비해 백인 주류의 46%, 흑인 개신교의 27%, 가톨릭의 37%도 중국을 적으로 분류했다.

2021년 1월 미 국무부는 신장 북서부 지역에서 중국의 대량학살, 강제노동, 위구르 무슬림 재교육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의 지지를 받았다. 2021년 6월에 남침례교는 위구르 집단학살을 공식적으로 규탄한 최초의 미국 교단이었다.

지난달 남침례교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는 NBC



유니버설에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중대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 특히 위구르인에 대한 대량학살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종교자유감시단체(CSW)는 1월 28일 다른 240개 NGO(ChinaAid, Family Research Council, Religious Freedom Institute) 단체들과 함께 외교적 보이콧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후원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오픈도어스는 2022년 세계 감시목록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50개국에서 중국을 17위로 선정했다. 동 단체는 중국에서 3,000건의 공격 또는 교회 및 기타 기독교 건물의 강제 폐쇄를 집계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사건의 5분의 3에 해당한다는 수치일 정도다.

지난 12월 미 정치전문지(The Hill)에 대한 기고문에서 미 오픈도어스 회장 데이빗 커리와 전 미국 국제종교자유 대사인 샘 브라운백은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에서...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중국에 있는 동료 신자들의 곤경에 대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중국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미국의 대형교회에서 주일 아침에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다른 곳에서 종교적 박해를 폭로하려는 소수의 조직들에게 인식 제고는 길고 느린 투쟁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인들이 행동할 기회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는 "결국 우리는 적의 말이 아니라 친구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또 "미국 기독교인들이 침묵을 깨고 중국에서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KAPC 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도는 목사먼저, 장로먼저..."

KAPC 목사장로기도회, 강사 류응렬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오세훈 목사)가 주최한 2022년 목사 장로 기도회가 "기도는 목사먼저, 장로먼저..."라는 주제아래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라스베이거스 갈보리교회(담임 조응철목사)에서 대면과 실시간 동영상으로 개최됐다.

강사는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가 초청됐다. 류 목사는 시간마다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새롭게 무장하며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오후 5시 조응철 목사(교육부 부장)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장성철 목사(총회 서기) 기도, 이영진 목사(총회 회의록서기) 성경봉독, 오세훈 목사(총회장) 설교와 김성국 목사(뉴욕교회) 축도로 진행됐다.

오세훈 목사는 "다윗의 기도"(시 1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 사역과 삶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근심을 물리치자. 세상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도 근심이 많았

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으며 사탄에게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했다. 우리 목사와 장로, 교계의 리더들도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은 갈보리장로교회에서 준비한 저녁찬을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진 뒤 오후 7시부터 저녁 집회와 기도회에 임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유상열 목사 4면	 잘 자는 '적은 집', 이제는 대세다! 16면
--	--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제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CALLED TO AWAKEN THE LAITY
2022년 4월 25일(월) - 4월 30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미주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사)
등록비 조기등록할인(3월 15일까지): \$420 일반등록비: \$475	대상 담임목회자 및 칼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
등록 온라인: DMI.SARANG.COM 문의전화: 714.635.3000	주최 남가주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



발행인 칼럼

흔적을 남기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남편 가게의 많은 물건을 도둑맞은 날. 그 아내가 웃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권사님은 밝게 웃었다. 그날 그 소식을 교역자들과 함께 전화로 듣고 있던 나도 웃었다.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가. 필자는 수사드라마를 좋아한다. 오래된 작품들이긴 하지만 수사반장도 재미있게 보았고 형사클럽보도 그랬다. 요즘 나오는 수사드라마도 재미 있을 터인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마땅치 않아 보기가 쉽지 않다. 현실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사관들의 소신이 있다고 한다.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소신이다. 수사드라마에서도 그렇다. 모든 범행에는

실낱같은 흔적이라도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찾고 찾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권사님 남편 가게에 들었던 도둑은 너무 확실한 흔적을 남기고 갔다. 그날 경찰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긴장감이 감도는 수사 과정이 필요 없었다. 도둑이 물건을 욱싹 썰기나 자신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간 것이다. 너무 확실한 흔적을 남기고 떠난 도둑,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범행만이 아니다. 모든 삶에는 흔적이 있다고 한다. 시드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반드시 크고 작은 삶의 흔적이 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살다간 자리에 많은 그림들을 남겼다. 믿기지 않지만 그의 작품 활동 10년 동안에 2천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자화상도 꽤 있는데 그의 삶이 그랬듯이 대부분의 자화상은 슬픔을 머금은 모습이다. 그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 어두운 삶에 빛을 소망하는 그의 내면을 고스라니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의 작품 중에는 구두를 그린 그림이 여럿이 있다. 웬 구두인가? 그냥 보면 낡은 구두들일 뿐인데 곰곰이 보면 기습 먹먹한 흔적들이었다. 험한 인생길을 이리저리 걷고 걸었던 구두 주인공들의 애절한 삶의 흔적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격언이 있다. "한 번 뿐인 인생, 곧 사라지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들만 영원히 남게 되리" 짧은 인생이 영원히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일러주는 격언이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라고 말한 조지 풀러가 그랬다. 그의 짧은 삶으로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기도의 흔적을 남겼다. 그에 대한 책의 제목이 '5만번의 기도응답'이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의 옷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기도 하였고 젊어서 술과 카드, 그리고 감옥까지 경험했었다. 그는 회심 이후 기도의 삶에 전력했다. 그는 5개의 큰 고아원을 세웠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오직 기도를 통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기도에도 응답이 아닌 실망을 주지 않으셨다.

며칠 전 필자가 속한 교단의 목사 장로 기도회가 대면으로 있었다. 미국 전역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였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사방의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다. 말씀을 받고 여러 기도제목을 가지고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크게 합심기도 했다. 기도회를 참석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지인의 장례식이 있었다. 오열하는 가족 가운데 그가 남긴 삶의 뚜렷한 흔적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간 흔적이 무엇이어야 할지도 생각해 보았다. 기도와 장례가 오버랩 되면서 무엇보다 기도가 삶의 흔적이 되고 싶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이론이 아니었다. 단지 가르침의 주제만이 아니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다.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신 공생애는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신 여정이셨다. 히브리서 5장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셨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가 위에서도 계속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긴다. 도둑 같은 어이없는 흔적이든, 고흐 같은 예술이든, 물리 같은 기도이든. 그렇다면 나는?

흑인기독교인들, 기독교에 대한 흑색 거짓말에 직면

CT, 도시변증학자들의 '흑인의식' 운동이 조장하는 왜곡된 주장 소개(상)

에릭 마슨(Eric Mason) 박사는 에피파니 펠로우십교회 설립자이자 담임목사로 도시 사역 조직(Thriving)을 통해 흑인 지역사회에서 피해의식으로 병든 흑인들을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있다.

현재 '비판적 의식'이론이 미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마슨 목사는 그 병폐로 '흑인의식'

운동으로 인한 심각한 기독교 왜곡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흑인 크리스천들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진정한 제자로 나아갈지를 도시변증학적 입장에서 명쾌하게 말해준다(Black Christians Are Confronting Black Lies About Christianity: How urban apologetics contends against the distortions promoted by "Black Conscious" movements).

1991년 부이주립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8, 90년대의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랬듯이 정체성 이데올로기라는 새로운 필드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 시기에 대학(특히 흑인대학)에 입학한 많은 흑인들은 가족으로 만든 아프리카 메달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예술적 패턴을 사용해 아프리카를 묘사한 티셔츠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문화적 장신구를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흑인들이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과 씨름하는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할

Muhammad)에 의하면 "소위 감동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야 한다. 그들은 백인의 기독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하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들은 백인의 종교가 하나님이나

교 변증론자로서 우리는 이 도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오늘날 도시변증학(urban apologetics)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필요한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이다.

제도에 대한 기독교의 역사적 역할을 흑인정신의 파괴에 대한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백인 압제자들이 흑인들을 속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유럽 사람들의 창작물로 본다.

그리고 이 주장에는 일리



벧전3:15에서 유래한 변증학, 유1:3에서 성경적 기초 설명 고전적, 실증적, 역사적, 경험적, 전체론적 변증학 등 다양

수 있다. 아마 학술회에서는 서적들과 청나일, 백단향, 유향, 몰약 오일을 판매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판매대는 백인들이 흑인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도록 억압한 진실 즉 흑인 정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흑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들의 종교를 따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은 스톡홀름증후군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미국에서 흑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는 내재된 지속적 긴장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마음에 각인돼 있다.

흔히 "흑인의식" 공동체라 부르는 단체 지도자들의 다 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오랜 기간 이슬람 국가 지도자였던 엘리아 무하마드(Elijah

예수 심지어 어떤 선지자들에게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전능하신 알라(신)가 아니라 백색 인종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역사가이자 고대 케메틱(이집트) 왕국의 자칭 사제인 자바리 오사제(Jabari Osaze)의 주장도 살펴보자. 그의 저서 '7개의 작은 하얀 거짓말: 흑인 자아상을 파괴하려는 음모'에서 "어릴 때 주일학교 수업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상자에서 모세와 노아의 종이 인형을 꺼냈어요...그들은 내 옆집 이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예복을 입은 늙은 백인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의 모든 영웅이 백인이라는 사실이 주입됐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들은 흑인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인지부조화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기독교

서구 백인 유럽 기독교가 줄곧 흑인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욕물을 버리다 아기를 버리듯 흑인의식공동체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하는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들은 진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하지 않았다. 도시변증학은 이 단체가 조장하는 거짓된 기원 이야기를 반대한다.

흑인 그리스도인들은 흑인 의식공동체에 의해 항상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항상 큰 비난을 받는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납치하고 노예로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많은 흑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이 기독교를 처음 접한 것이 노예무역을 통해서였다고 배웠다. 많은 사람들은 노예

불리는 어떤 사람들은 흑인들이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서 모든 인간에게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더럽혔나? 그렇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흑인 공동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확고한 신학적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는 흑인의식운동의 지지자들이 제기한 반대와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시대에는 판도가 달라졌다.

반대의견은 이전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간다. 기독교에 대한 거짓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흑인의식운동과 기독교에 대한 흑인의 다른 반대운동을 다루는 특별한 도시변증학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1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university building,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and details about the School of Theology, degree programs, and contact information.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선거

얼마 전 이태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임기 7년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고 20개주의 대표 58명과 상원과 하원 의원 950 명이 뽑는데 2/3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3번 투표해도 나오지 않을 때는 과반 찬성으로 하는데, 단번에 뽑히는 경우는 천지가 진동하기 전에는 불가

능하다 싶다. 1971년 선거에서는 23번이나 투표를 해야 했다고 한다. 이번에 후보로 나온 분들은 열댓 명이 넘을 정도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넘쳐난다. 그 중에는 얼마 전 임기를 마친 직전 대통령도 몰려나지 않고 엉거주춤 자리를 같이했다. 어렵겠지만 당선만 되면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닐까 싶다. 무려 7년 동안 큰 비난 받지 않고 국민들을 향해 손만 잘 흔들면 되는 대신, 영광과 인기를 받는 자리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너도나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과반수를 얻기 위한 투표를 무려 여덟 번이나 반복해야 했다. 처음 투표에서는 직전 대통령이 36표 밖에 얻지 못했다. 그런데 20개 정당 대표들이 한번 투표하고 당선에 필요한 표를 얻지 못할 때마다 협상을 벌이고, 또 다시 협상하고를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한 후에 여덟 번째의 투표로 직전 대통령을 다시 뽑았다. 아무래도 무소속이기에 어느 정당에 속한 것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어떤 대통령은 한 번 더 하라고 권하자, 아이고, 골치 아픈 자리를 왜 또 맡겠느냐면

서 사양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은 아름답게 보인다. 정치가에게 절제라는 단어를 아름답다 단어는 드물 것이다. 로마에서 나폴리 고속도로를 가는 중에 아르피노(Arpinum, Arpino)라는 마을이 있다. 그 마을은 이태리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산동네 마을이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태어났다. 한 사람은 마리우스(Gaius Marius BC157-86)요. 또 한 사람은 철학자며 정치가요, 인문학이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키케로이다. 그런데 마리우스는 아주 드물게 집정관을 일곱 번이나 연임했다. 국가적 위기에서 원로원의 요구 때문이기도 했고, 탐욕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한 피해가 컸다고 로마사를 기록한 영국의 기본은 언급하였다.

그 전에는 국가적 변란이나 외세국 침략해올 때 원로원의 가결로 집정관을 임명하여(보통 6개월 동안) 국가적 위기를 해결한 후에는 다시 원로원의 원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야인이 되는 것을 공화정의 미덕으로 여겼다. 그래서 탁월하게 집정관직을 수행한 어떤 자에게는 한 번 더 하라고 했더니 그 복잡한 자리를 왜 또 맡겠냐면서 손 사례를 치면서 야인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다. 그런 역사적 흐름을 잘 알고 있었던지 거대한 로마제국이 사라지고 1천4백 년 동안 도 시국가로 연명해오면서 이태리는 유럽의 동네북 같은 신세였다. 그런 조국을 목숨 걸고 나서서 통일을 이룬 주세페 가리발디(1807-1882) 장군이 있다. 그는 남미 미국 남북전쟁에도 개입했는데 분명히 일어나 통일운동에 앞

장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룬 후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성공한 자에게 기다리는 권력의 자리를 마다하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지금 우리나라(한국)는 대통령 선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동양의 작은 나라를 세계적으로 부상케 하는 놀라운 시대 상황에 걸맞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세계선교를 탁월한 반석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지막 염원이 아니겠나 싶다. 그것을 성취할 수단으로서의 부활하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주님의 재림도 앞당겨질 수 있겠다 싶다.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오늘 말씀은 이사가야 소명을 받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명 사건은 그가 처음으로 부름을 받게 된 사건이기보다는 이미 선지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대하26:22),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체험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역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 이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가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자리가 영원한 소명의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가야 하나님을 본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웃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웃시야 왕은 유다의 제 10대 왕으로 기원전 791년부터 739년까지 약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군비를 증강하고 변방을 탄탄하게 해서 국력을 크게 증강시키는 등 비교적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본거지

살아오던 그 무엇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충성토록 감당하며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상의 복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그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

다. 웃시야가 죽고 나서야 이사가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1절 중반 이후부터 쪽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사람들은 모셔 썼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서로 장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세상의 모든 왕권을 초월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죄를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사가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입니다." 선지자 이사가야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함입니다. 세상에서의 출세나 성공이나 명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에도 불구하고, 망할 만큼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요한1서 8절이 그걸 증거 합니다. 8)"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받을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요한1서 1장 9절입니다. 9)"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은 누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에서 짓게 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제도를, 신약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소명! 이사가야 6장 1-8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 소명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또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모든 성도는 이미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소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나 시민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가령 선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선교지로 가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말하고 사명을 말합니다. 소명과 사명이란 말은 크게 보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가 강하고 사명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엔 그냥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인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 통치 말기에는 자신이 스스로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웃시야 왕이 죽은 해에 이사가야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웃시야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사가야 선지자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웃시야 왕이 아직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사가야는 웃시야 왕의 시종행적을 기록하기도 했지만(대하 26:22), 그런 과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가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 때까지 한센병으로 그토록 하나님의전에서 별궁으로 쫓겨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웃시야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는 그 무엇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인간은 누구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간증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리하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자신의 존재적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될 때 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가야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1절b). 이사가야 바라보던 지상의 왕 웃시야(“여호와와 나의 힘”이라는 뜻)는 죽었습니다. 실제로 웃시야는 그의 선한 통치기간 동안에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힘이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야도 그의 업적을 기록하는 데에 전념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왕은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사가야 보는 현실적 상황이 무엇입니까? 웃시야 왕은 마침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가셨습니다. 웃시야가 살아있을 때는 보좌가 비어 있다가 그가 죽고 나서야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가시는 것입니

다. 스랍들이 크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세 번이나 외친 겁니다. 여기서 세 번이란 말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적 숫자 개념이기도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삼성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집에도 있습니다("거룩, 거룩, 거룩"). 이제 스랍들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이 같이 찬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여기서 찬화라는 말은 서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다, 혹은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의 위엄이 있는 모습으로 현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과 그분의 영광 앞에 그냥 엎드려 아무 말도 못하고 경외감을 갖는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본성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사가야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진실한 고백과 그에 합당한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가야 선지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6, 7절을 봅니다. 6)"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바 핀 솟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거하였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반드시 알 것은 회개 없는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말은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신약이후 사상으로 인도하는 원죄는 맨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고백했을 때 용서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믿음의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게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가야 누굽니까? 예언자입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하나님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각 자마다에게 주어진 분명한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 그 사명을 발견하고 충성토록 감당해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명을 위한 부르심의 소리는 세상 사람들의 달콤한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소리로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뭇지 그 소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를 사함 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앞드림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소명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가야를 부르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소명 앞에 이사가야 답을 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와 같은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이 있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ivingstonech@gmail.com

하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범죄가 높아지는 도시들과 그 이유(상)

여기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던 캘리포니아, 그리고 한인들과 여러 인종들의 마음과 땀이 배어 있는 Los Angeles입니다!

혹시 아직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못 받으셨나요? 혹시 크리스마스 때 보낸 선물박스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직 안 갔거나 또는 누가 보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받아야 할 물건이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했다면 어쩌면 옆 사진에서 보시는 박스들처럼 이미 부서지고 흙집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와 새해 선물로 보낸 것들이 도착 안한 이유는 저희가 부쳤던 박스들도 이 박스들 중 하나인 걸 이번에 우체국에 직접 가서 알아본 결과 그들 시간이 걸려서 알게 된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캘리포니아 LA에서는 여러 LOCAL(지역) 리포트들과 경찰 리포트에 의하면 지난 11월부터 이렇게 화물열차들이 열차에 가스를 Refill하거나 또는 열차 점검을 위해 잠시 쉬려고 LA에 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차가 잠시 멈추려고 하는 동시 또는 열차가 멈추자마자 열차 도둑들이 단숨에 달려들어 긴 열차들 뒷문에 잠겨있는 열차들을 쉽게 망치 같은 걸로 때려 부시고 그 안에 있는 박스들을 무작위로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자신들이 원하는 이후의 흔적들입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박스를 열었다가 자기에게 필요 없거나 팔아도 돈이 안되는 것들은 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LA 경찰에 의하면 이 열차 도둑들이 지나고난 이후의 흔적은 미국이라고 할 수 없



부서진 박스들을 청소하고 있는 열차회사 사람들

을 만큼 아프리카도 이 정도가 아니라고(아프리카계의 흑인경찰의 말) 할만큼 처참합니다.

또한, 열차도둑들은 처음에는 각자 훔치거나 했던 거 같은데 몇 달 동안 훔치는 실력들과 그 숫자들은 꺾단과 조직적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떼거리로 모여 크고 작은 물건들을 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차들은 LA를 거쳐 미국 전역으로 수많은 박스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기업용, 마켓용 물건들도 나르는데,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박스들 또는 선물로 보내지는 박스들, 기업용 등등 주로 Amazon, Fedex, USPS, UPS 심지어 코비드 테스트 키트(COVID Test Kit) 등등을 나르는 화물 기차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황당스런 일을 계속하여 또다시 당한 Pacific 열차회사는 말하길 '게빈 뉴섬 주지사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도둑에 대한 처벌을 매우 낮추어 놓았기에 경찰들이 이런 대낮의 도둑을 잡아도 금방 풀려난다. 따라서 신고를 해도 계속 케이스가 밀리고 시간만 흐를 뿐 이런 열차 도둑들을 잡고자 하는 경찰들도 거의 없고 로스앤젤레스 경찰들의 일손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몇 달째 이런 일들을 계속 신고해왔어도, 지금 캘

리포니아는 주정부가 경찰들의 숫자를 삭감(Defund Police)한 상태라서 지역마다 경찰들의 숫자가 범죄 사건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모자란 경우인지라 경찰을 불러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시장과 지역리더들과 같이 나눠야 할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미



로스앤젤레스, 열차도둑 지난 11월 이후 160% 인상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주정부가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 악법들 때문인데 한 예로 이제는 1000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큰 범죄(Felony)도 아닙니다. (950달러까지는 "Petty theft" 라고 새롭게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법, Penal Code 459.5 PC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등 도시마다 이런 도둑들은 경찰에 불려가도 이제는 작은 도둑이라고 별척이 매우 낮아져서

Misdemeanor로 바뀐) "만일 잡히면 금방 풀려나거나 잡히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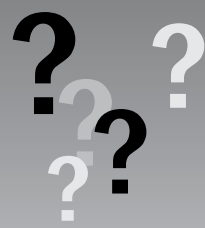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도둑을 잡을 수 없는 경찰, 잡아도 도둑의 편을 더 많이 들어주는 법안들...? 잡아도 "왜 잡느라고 고생하니" 라는 눈빛으로 어깨를 피고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가는 어제 데려온 도둑의 으스스거리는 걸음... 과연 이것이 캘리포니아 맞을까요?

아래 사진은 인터뷰 중 "잘못된 사회정의를 만들어가는 mean spirited(못된 영혼), anti-humanistic ideology(비인간적인 개념/사상)을 가진 자들, Cruel(매우 사악)하다고 말하는 중.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째 되는 1.5세 목사입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죽음과 둘째죽음은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첫째부활과 둘째부활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하버에서 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크게 4가지 질문입니다. 1)첫째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육신과의 분리(separation)되는 것을 말합니다. 2)둘째죽음은 몸과 영혼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계20: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을 신학적으로 계천이라고 합니다. 몸과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3)첫째부활은 계시록 20장 4-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 노릇한다"(4,6절)는 말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첫째부활이라는 말은 계시록 20:5절에 처음 나옵니다. 첫째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을 때에는 첫째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신자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첫째부활로 해석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첫째부활을 예수 믿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함

첫째부활은 낙원에서 영생 누리는 것 둘째부활은 예수재림하실 때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

니다(김승곤 목사, "요한계시록의 참뜻", p.342). 그러나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첫째부활을 예수 믿고 죽은 신자의 영혼이 하늘의 낙원에서 살아 천국의 영광과 왕 노릇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필립 E. 휴즈(Phillip Edgcumbe Hughes) 박사는 그의 책 "요한계시록"에서 계20:4절을 주해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첫째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복이 있다. 비록 자신이 죽어 육신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지라도 영혼은 살아 첫째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썼습니다.

고신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변종길 박사는 화란 캠퍼신 학교 출신인데 그의 책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첫째부활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낙원(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계14:13). 곧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안에서 죽은 자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복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첫째부활의 영광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천상입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리고 계20:4-6의 내용은 이 땅이 아니라 천상에서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부활의 영광은 천상에서 일어나며 그래서 4절에 천상의 보좌가 나오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 광경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보좌의 장면인 것입니다.

4)둘째부활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버티며 쌓는 삶

운동을 아주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여러 운동경기 관람을 무척 좋아한다. 외향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성격과 만능스포츠맨이었던 아빠를 통해 어려서부터 여러 운동들을 배우고 많이 보았던 영향인 것 같다. 어린 시절 아빠와 오징어와 꽃감을 먹으며 AFKN방송으로 NBA농구와 워싱턴 테니스대회를 본 추억이 있다. 또 특별히 95학번인 나의 세대가 중,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되던 시기가 우리나라의 많은 스포츠

들이 프로팀을 출범하고 농구, 배구, 야구 프로경기에서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스타선수들이 배출되며 많은 인기가 있던 시기와 맞물리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에 온 이후로는 한국에서처럼 직접 경기를 관람하러가지는 못했다. 먼저 티켓 값이 너무 비쌌고 주말에 주로 열리는 경기들은 더욱 기회가 닿지 않았다. 미국의 2월은 슈퍼볼 열기로 뜨겁다. 올해 결승진출을 한 신시내티 벵갈스팀이 속한 신시내티시는 결과

에 상관없이 2월 13일 경기 후 14일 월요일을 시의 모든 학교들이 일일휴교령을 내릴 정도로 그 인기는 대단하다. 예전처럼 '직관'은 못하지만 TV를 통해 중계되는 경기들을 보며 이제 남편, 아이들과 팝콘과 소다를 먹으며 함께 즐기고 응원한다.

요즘은 특히 유튜브를 통해 은퇴한 유명선수들의 예전 경기장면들이나 선수시절의 예포소드들을 보는 재미가 크다. 특별히 선수시절에는 크게 유명하지 않았지만 유튜브채널을 통해 현재 더 인기가 많은 축구 선수 조원희 선수의 채널을 자주 본다. 유쾌하고 불임성이 좋은 호탕한 성격의 그는 은퇴 이후 축구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본인의 유튜브채널 '이거해조 원희형'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직접 유명선수들과 1:1 축구를 하기도 하고,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며 채널 수익의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은퇴 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어느 날 선수시절 예포소드

를 얘기하며, 특별히 2009시즌 EFL리그 위건 애슬레틱FC로 이적하여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1년을 겨우 채우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본인 인생의 가장 큰 후회와 아쉬움을 얘기했다. 낯선 환경과 언어소통의 어려움, 인종차별이 심해서 너무 힘든 경험들을 하고 있을 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로 도움을 정말 많이 주었다고 얘기했다.

박지성 선수는 포기하고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에게 항상 "버티라고! 장난하냐고, 프리미어리그 아무나 오냐고 진짜 버티보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나마 한 시즌 일년을 겨우 채우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다. 그리고 조원희 선수는 "더 버텨야 하는데..."라며 마지막까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늘 유쾌하고 재미있는 모습만 보이던 그가 박지성 선수의 조언과 후회를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박지성 선수의 조언은 계속

내 마음에 찔림을 주었다. 하나님 구원의 사랑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값없이 받고 주님의 자녀로 소속된 나는 삶속에 열매나 버티며 살고 있는가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내게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려움과 시험, 고난은 끊이지 않고 나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지... 코로나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사회적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떠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다.

국립국어원에 등재된 '버티다' 동사는 1)어려운 일이나 외부의 압력을 참고 견디다. 2)어떤 대상이 주변 상황에 움직이지 않고 든든히 자리 잡다 3)주위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굽히지 않고 맞서 견디어 내다로 정의된다. 버티는 것은 그저 어려움이 지나가길 속속이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

운 상황을 이겨 내려하는 자아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담긴 단어이다.

한국선수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 스카우트되어온 후배에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선수가 되었으니,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가장 큰 것을 이겨낸 선수의 자격으로, 그 힘으로 버티라는 박지성 선수의 안타까운 조언과 격려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이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버틸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오롯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오로지'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43:1).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목회자들, 인기보다 그리스도 성품 닦기 추구해야"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많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유명 목회자나 더 나은 예배 환경을 갖춘 교회로 떠나는 현상을 목격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목회자는 인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텍사스주 파라마운트침례교회 앤드루 헤베르 목사는 7일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에 기고한 '목회자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목표'라는 글에서 "어떤 목사도 유명 목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 목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교회로 떠나는 성도들 본 많은 목회자는 성공하는 목회자를 흉내 내고 경쟁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며 "많은 목회자에게 성공을 이상화하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했지만 팬데믹 기간 더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역에서 진정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목회자의 매력이나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어떤 제자인지를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지녔는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마5-7장)에서 본질적 해답을 찾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건 군중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이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이었다는 것이다.

프린스턴 상징 '밀러채플' 이름 바뀐다

뉴저지 프린스턴신학교(총장 크레이그 반즈)가 이 대학 두 번째 교수였던 새뮤얼 밀러를 기념해 만든 '밀러채플'(사진)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장로교 목사였던 밀러 교수가 일생 흑인 노예를 고용했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기 때문이다.



신학교 연구에 따르면 밀러 교수는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를 반대하면서도 자신은 노예를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린스턴신학교 이사회는 "밀러를 기념하며 세워진 예배당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한 건 대학공동체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대학의 상징과도 같은 예배당은 1834년 건립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대학은 당분간 '세미너리 채플'(신학교 예배당)로 부르기로 했으며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프린스턴신학교 이사인 임성민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인종 차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미국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프린스턴신학교도 몇 해 전부터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위원회를 조직했고 대학과 관련한 역사를 살살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

과 흑인 연구소를 비롯해 흑인 석좌교수를 모시기도 했으며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라이프 투게더'라는 과목도 개설해 인종 감수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4000여명이 재학 중인 미국 최대 신학교인 남침례신학교 이사회는 노예를 소유했던 이 대학 설립자들의 이름을 대학의 여러 건물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회는 "성경의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도 불완전했지만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도 설립자들의 이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럽 조력자살 논란 속 "죽을 권리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고귀함이나 이른바 '조력자살'(또는 조력죽음)에 대해 교계도 목직 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조력자살은 의료 관계자 등에게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힘(또는 요청)으로 직접 약물을 복용 혹은 주사한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적극 개입해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제한적인 존엄사가 가능하지만 조력자살은 처벌 대상(족탁살인)이다.



최근 암 투병으로 고통 받던 20년 지기 친구의 요청에 살해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보도는 조력자살을 향한 사회 인식이 일부 반영된 측면도 엿보인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이탈리아 의회에서 논의 중인 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해 "죽을 권리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과 함께해야 하지만, 죽음을 유발하거나 자살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력자살 합법화가 잇따르고 있다. 2001년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안락사와 함께 조력자살을 허용한 이래 벨기에(2002년), 룩셈부르크(2009년)가 합류했다. 이어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도 합법화 조치를 취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를 비롯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주도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양쪽 입장을 절충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윤리·공공정책센터의 라이언 앤더슨 대표는 줄곧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제도 및 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떠난 지 1년...견재한 트럼프

미국 공화당 소속 랜던 브라운 하원의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 공화당 유력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편에 섰다.

미 언론은 공화당의 분열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아직 확고한 상태여서 당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많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0일 뉴욕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나는 2016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해 일한 가장 초기의 지지자"라는 내용의 동영상 제작을 트위터로 공개했다. 그녀는 영상에서 "나는 트럼프 당선을 위해 전국 7개 주에서 일했다" "트럼프 덕분에 미국은 일 자리를 되찾았고, 안전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강해졌다" 등의 칭송을 쏟아냈다.

미 언론은 이를 두고 "트럼프의 은혜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국민의 대표가 당 지지자를 감동하게 하려는 특이한 방법"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시기' 주장을 비난하고 있지만 여론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CNN은 최근 여론조사(지난 1월 10일부터 2월 6일 성인 1527명 대상)에서 '선거가 국민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는가'는 질문에 응답자 44%만 신뢰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선거를 '거의'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였다.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17%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3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CNN이 지난해 의회 폭동 직후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긍정 응답이 59%로 부정 응답(40%)을 19% 포인트 앞섰다. 1년 만에 선거 신뢰에 대한 여론이 뒤집힌 셈이다. 지난해 여름(8월 3-9일 7일) 조사에서는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이 각각 48%, 52%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 선거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공화당원 사이에서의 선거 불신 여론은 지난해 75%, 올해 74%로 변화가 거의 없다. 반면 민주당원 사이에서 선거 불신 여론은 지난해 9%에서 올해 32%까지 무려 23% 포인트나 급증했다. 중도층 사이에서도 같은 의견이 35%에서 48%로 13% 포인트 늘었다. 민주당원 사이에서 공정한 선거에 대한 확신은 68%에 그쳤고, 무소속은 41%에 불과했다.

CNN은 "13개월 만의 놀라운 반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지 않는 그룹들도 미국의 선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의회 폭동사태 책임론도 힘이 떨어지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는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43%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52%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책임론'이 9%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23-24% 수준으로 변화가 없었다. 반면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지난해 24%에서 올해 32%로 늘었다.

"우크라이나 교섭을 아직 평은..."

지난 7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위기관리재단 등 선교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외교부가 지난 달 25일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주(州)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우크라이나 체류 한인 교민에게 비상연락망을 유

지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위기관리재단은 해당 내용을 선교 관련 기관과 교회에 알렸다. 이를 뒤엔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이 구축한 비상연락망도 고지했다.

위기관리재단 전호중 대표는 13일 "현지 선교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나 상황은 평온하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긴박해질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도 짐을 챙겨 놓고 국내 선교단체들과 비상전화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한국인 선교사가 코로나19 전까지 116명이었다가 지금은 106명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폴란드 현행 법령에 따라 '우크라이나-폴란드' 육로 국경 통과를 제한받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현지 외교관과 공유했고 수도인 키예프에 두 곳, 크비보와 오테사에 각각 한 곳 등 총 4곳에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집결 장소도 마련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크리스체너티투데이(CT)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지만 선교사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CT에 따르면 대부분 선교사는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고 인근 국가로 이동한 일부 선교사는 선교 사역의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 키예프신학교 고등교육 개발이사인 릭 페르하이는 미국 선교단체인 샌드(SEND)인터내셔널 파송 선교사다. 샌드인터내셔널은 1990년대부터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페르하이는 선교사는 "키예프신학교 학생은 나에게 희망을 줬다. 그들은 불확실성과 위협에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며 "나는 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이곳에서 계속 격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복음주의신학대학원의 조슈카 토카 선교사는 최근 가족과 함께 이웃 나라로 이주했다. 그는 이 학교에서 8년간 현지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 토카씨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에서 구축한 (복음의) 관계를 합리적이면서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온라인 등을 통해 화상으로 수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항하라...독립 위해 싸우자"

러시아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수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행진하는 등 러시아를 성토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선 수천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힘차게 국기를 부르고 국기를 흔들며 행진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저항하라'고 적힌 현수막과 동시에 '전쟁은 답이 아니다'라고 적힌 팻말도 있었다. 현장에 있던 학생 마리아 세르벤코는 AFP에 "공포에 떨어야 할 소용없다"며 "우리는 독립을 위해 단결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두 명과 함께 시위에 참여한 나자르 노보셀스키는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군대를 집결시킨 러시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높았다. 60대 의사 나탈리아 사보스티코바는 "어째서 푸틴이 우리에게 이래저래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40. 리종관(1872-?)

리종관(李鍾寬)은 1872년경에 서울 연동에서 태어났다. 가족을 한국에 두고 그는 혼자서 1905년 3월 10일에 차이나 선박을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의 영어 이름은 Chong Kwan Ye였다.

리종관은 1919년 2월에 하와이 지방 총회장에 선임되었다. 그 외 임원으로는 부회장에 손창희, 총무에 김광재, 서기 및 재무에 김영우, 학무원에 이승만, 법무원에 서상홍, 구제원에 정운필, 근무원에 손덕인, 농상부원에 신성일 그리고 대표원에 안현경, 윤계상, 류상기였다.



리종관

에 참석했다. 이 연회에서 리종관이 호놀룰루 한인 기독교회 평신도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외로는 서기에 최성대, 재무에 민한옥, 임원에 강영복, 서기문, 최백렬, 황원태, 정인수 그리고 김윤배였다. 또한 그는 김성기, 안시흙, 민한옥, 민찬호, 조석진, 백낙현, 이승만, 김성기, 최성대

두하, 안창호, 방종환, 민찬호, 안현경, 조석진 그리고 정인수였다.

1934년 7월에 '한인기독교보'가 속간되었는데 리종관은 "축, 기독교회보 속간"을 기고했다. 아래의 그의 기고문에서 시대를 읽은 선각자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반갑고도 즐겁도다. 기독교회보의 갱생함이며, 어둔 밤은 지나가고 밝은 낮이 옴이로다. 업동이 넘어감이며, 양춘이 돌아오도다. 초목과 군성이 즐거움이며, 화기가 우주에 창일하다. 달했던 굳은 말을 용맹이 깨쳐 열고, 북악 같이 성수를 들어 남산수로 축하한다. 어찌하여서 그대의 이름이 기독교회보이뇨? 나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이니 그대가 짊어지고 여는 목적과 주의를 먼저 알고, 나의 신조와 일치 하나 하여 그대의 갱신을 더욱 열광적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는 바이다.

물노니 그대의 목적이 무엇이뇨? 신령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써 유년, 장년, 노년의 영적 교양과 훈련이다. 유년에게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종교적 지식으로 교양을 시키는 가정교사로, 장년에게는 자기 인격을 완성하여 어두운 사회의 지도가 되어 산 위에 세운 산성 같고, 등대에 견 등불과 같이 어렵고 곤란한 중에서 성공을 목표 삼고 다름없는 용사를 기르는 양성자, 노년

과학 만능의 시대이다. 언제든지 그럴 것이요. 또한 이 세상에선 절대로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리석은 자에게 나타내신다. 지혜로운 체하던 사람들은 흥수에 빠져 죽어서 어리석은 자취를 남겼고, 어리석게 여기던 노이는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어 지혜로운 자취를 남겼다. 지식이 많은 지질학자는 동경과 횡빈을 몇 초 동안에 초토로 화할 줄을 몰랐으니 과학의 만능도 하나님 앞에는 저의 어리석음을 자랑할 뿐이다. 그런즉 과학적 이론과 증거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하려는 어리석은 과학자에게 진리를 천명시켜 주는 계명 운동자 되기를 바라고 축하하는 바이다.

그대의 탄생하는 이 시기와 처지가 어렵고 위대한 시기임을 잘 알 것이다. 동심이 아무리 냉혹하고 삭풍이 얼마나 열렬할지라도 청송과 녹죽이 저를 변치 아니할같이 비록 시기가 불리할지라도 백절불굴하는 견착한 입지로서 꾸준히 이기고 나가면 양춘이 절이 높고 의심이 없을 것이요. 속담에 부모의 유산이 없는 자는 큰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자기의 노력과 활동으로 이루는 자수성공과 같이 비록 가난한 우리 사회에 날지라도 정성과 진심으로써 쉬지 않

1936년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담임목사는 김형식이었고, 리종관은 교회 직원이기 하였으나 퇴역(은퇴)목사였다. 그 외 교회직원으로는 전도사에 조석진, 집사에 이재연과 차신호 그리고 여집사에 윤세라, 안득은과 안숙자가 있었다. 그리고 청년 면려회 회장에 윌터남, 소년 면려회 회장에 해리김이었다. 재무부에 여러 직원이 있었는데 부장에 손창희, 서기에 문인화, 회계에 박주범 그리고 위원에 황원태, H.E 최, 제임스 심 박사, 공영복, C.S.공, N.S.박이 있었다.

그해 3월에 하와이 한인예수교연합회는 이른바 신사참배 문제로 일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실을 널리 세계에 폭로하는 선전 사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미순 메트로폴 홀에서 특별 대회를 개최하고 장래 사무진행에 관하여 토의한 후 이사원을 선정하였다. 이사원에는 정원명, 이태성, 손창희, 조경천, 이정건, 안현경과 함께 리종관도 포함되었다.

리종관은 1938년 한인선교부 이사원의 제2 부이사장이었다. 그해 부장은 이승만이고, 제1 부이사장은 박동원이었다.

1940년의 호놀룰루 담임목사는 김형식이었고, 리종관은 김이제와 함께 휴직 목사였다. 그리고 전도사로 손승운과 안득은이 있었다. 기타 직원으로는 주일학교와 영어예배 교장에 이동빈 목사, 부사에 김학성과 김노디, 탁사에 이원순, 강영복, 양유찬, 이재연과 문인화, 재무에 최성대, 박주범과 손승운, 집사에 안숙자, 안득은, 윤세라, 백인숙, 심영선, 조매륜, 전영옥, 김유실, 이복수, 민함나, 정순이, 이영옥, 양로원장에 김노디, 국어학교 교장에 김영기, 부인 보조회 회장에 조매륜, 상에보조회 회장에 송매리, 평신도회 회장에 김광재, 그리고 서기에 김유실이 있었다.

1941년 3월 23일 주일 주보에 따르면 한국어 아침 예배에서 리종관이 기도하는 순서를 담당했다. 당시 담임목사는 김창순이었는데 이날 주보에 담당자의 소요 시간이 적혀 있었다. 이날 그가 해야 할 기도는 5분간이었고, 김창순 목사의 설교는 15분간이었으며, 안현경 전도사의 광고는 5분간이었다. 그때의 기도가 3분 정도로 지정한 소요시간의 기도보다는 길었고, 그때의 설교는 20분에서 25분을 할당하는 오늘날의 설교보다 짧았다.

리종관이 1942년에 한인선교부 이사 임기가 끝나면서 교회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것 같다. 한동안 대한인동지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지 않던 리종관이 1943년에 이원순 이사장의 체제에서 안현경, 박주범, 서정일, 서기문, 배일진, 민근호, 홍진표, 도진호, 이명우, 정영옥, 김영기와 함께 이사로 활동했다. 이후 그의 이름을 찾기 힘들다. 그는 리진실과의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다.

damien.sohn@gmail.com

1919-1929년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부목사, 1931-1934 설교목사로 사역

1921년 대한동지회 창립, 독립운동... 한인선교부 이사원 제2 부이사장 역임

등과 함께 한인 선교부 9인 이사원의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9인 이사원은 1/3이 목사이고 2/3은 평신도로 구성했다. 그리고 그는 한인선교부 재무를 맡았고, 안시흙과 함께 장정개조위원이었다. 그해 리종관은 정인수와 함께 대한인동지회 호놀룰루 이사로 선임되어 교회운동과 함께 한국 독립운동에도 가담했다.

이용직이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담임목사직에서 떠나던 1931년부터 리종관은 강태희와 감리교회에서 퇴직한 김이제와 제일한인감리교회 임도화, 세 목사와 본 교회 서정일, 안현경, 정운서, 정인수, 조석진, 차신호 등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본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였다. 김형식이 본 교회 담임목사로 1934년 6월에 부임하였으니 리종관의 설교 목사직은 한 해로는 3년이 된다.

김형식이 담임목사로 취임하기 3개월 전인 그해 3월에 리종관은 각 교회 목사와 인도자를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목사실에 초청하여 좋은 음식을 나누며 친목한 후 그날 저녁에 청년 대회와 그 사업의 필요를 토의했다. 여러 목사가 간단하게 의견을 말한 후 강영락이 청년 사업에 대한 계속 방침을 설명하였을 때 대부분 깊은 동정과 찬성을 표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소집한 리종관과 청년 사업을 설명한 강영락 이외에도 김이제, 박중수, 임

에게는 사회로 더불어 싸우다가 인상의 고통에 패전하여 마음이 물허서 슬퍼하며 소망이 끊어져 탄식하며 신음과 고통으로 그날그날을 허송하는 이들에게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잃은 소망을 다시 얻어 영원불멸하는 진리의 새 생활을 걸어가게 하는 지도자로 또는 한 주으로는 희생, 사회, 과학의 봉사과 천명함에 힘쓰리라.

사람마다 남이 자기를 존경하고 칭찬하고 섬겨주어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얻기를 바라고 원한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그런 분수에 없는 욕망을 가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그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하며 부득이 그 존경을 받게 되면 더욱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섬김을 받으려 오지 말고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예수는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이 희생하셨으니 그대는 우리 교우를 섬기는 희생적 생활의 표본이 되며, 사회를 떠나서는 살 사람이 없다. 마치 물을 떠나서는 생선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있어서 그 사회에서 살려면 주의 살도록 함이 우리 사람의 의무이고, 더욱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그런즉 사회의 소금이 되어서 완악한 저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박애주의로 감화시키는 기독교 사회주의가 되며 지금은

고 노력하고 활동하면 그 앞길은 양양하여 성공의 영광을 쓸 때가 있을 것이다. 탈 없이 자라나고 거침없이 걸어가자. 끈기있게 잘 걸러주리라.

1934년 8월에 하와이 6천 동포 가운데 애국심이 가장 풍부하기로 이름난 최병선이 국민회 부활운동을 적극적으로 정신과 재정으로 돕고 있었는데 동지회 인사들을 포함하여 호놀룰루의 한인사회의 신사 50여 명을 자택이 있는 아이아 농장에 초청했다. 음식을 대접하며 어찌하면 사회를 붙잡아 민족의 행복을 기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 명이 의미심장한 연설을 하였다. 연설한 자 중에 이정건, 박중수, 안창호, 박동완, 흥한식, 조병오, 강영락, 이태성, 오 운, 최선주, 최창덕, 안원규, 민찬호, 조석진, 홍희범, 김경옥, 정원명, 김윤배와 함께 리종관도 있었다.

1935년 1월에 한인기독교회 중앙이사국을 호선했다. 이날 리종관은 서무와 서기 그리고 재무부 부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선출된 자로는 국장에 박동완, 선교부장에 민찬호, 부원에 박동완, 교육부장에 김형식, 부원에 최성대, 재무부장에 정운서, 사회부장에 안현경과 부원에 정운서였다. 그리고 이사 9인을 선정하였는데 이사로 선임된 리종관의 임기는 이승만과 최성대와 함께 1936년까지였다.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1919년 10월에 민찬호가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는데 리종관은 본 교회 부목사로 섬겼다.

2년 뒤 1921년 7월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승만이 임시정부를 옹호하며 대동단결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동지회를 창립했다. 이때 민찬호, 안현경 등과 함께 리종관도 동참하여 한국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듬해인 1922년 10월 19일자 신한민보는 "하와이에 한인기독교 회당을 새로 건축하는 바 리종관씨의 주장으로 한인 목사가 역사한다는데 이날 중순에 필적하기로 예정한다더라"고 보도했다. 그해 11월에 새 예배당 헌당예배를 드린 후 2주가 되던 때에 부인보조회가 조직되었다. 다음 달 3일에 회집한 부인보조회에서 리종관이 앞으로 어떻게 하든 돈을 모아 교회당 건축 빛을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음식을 만들어 팔아 건축 빛 마련을 결정했다. 이 부인보조회 모임에 그가 참석한 것으로 보아 그가 부인보조회 고문으로 보인다.

리종관은 민찬호가 사임하던 1929년까지 10년간 본 교회에서 사무했다. 그해 한인기독교회 연합체인 '중앙한인기독교회'가 하와이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었고, 1931년에 '한인선교부'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해 리종관이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대표로 이직, 조석진, 민한옥, 박인숙과 함께 한인선교부 연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4)446-4499, www.lbcgoc.com 1720 S.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714)481-2779 / facebook.com/se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망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전 1:2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0777, Fax: (714)772-0777 1111 N. B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 예배: 오전 7:30 Tel: (310)719-2244, www.dhc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예배)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Tel: (213)381-2202, www.mjpac.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영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626)2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만찬예배: 오전 9:15, 11:30 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www.bethelbpc.org / www.bpc.org 18700 Harvard Ave., #8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 일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북쪽연안감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목: (월-금)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부) 사역대상: 2. 고령화평신도 여성지도자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마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 www.elphi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례기도회: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생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8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일/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o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믿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cs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 일 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encogoc.org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 "어성령이 임하시네" 오전 9:30 새벽예배: 오후 7:00 Tel: (213)500-2948, dcbk.kim@cbi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말씀과 땅 (3) -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오"

창세기 1-2장에서 가장 특이한 표현을 담은 구절을 뽑으려면 2장 22절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언뜻 보기엔 특이한 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구절에 사용된 두 단어의 독특함을 알 수 있다: "갈빗대(ṣēlā)"로 여자를 만드시오(wayyiben). "만드시오(wayyiben)"를 우선 살펴보자. 창세기 1-2장에서 딱 한 번 사용된 이 단어는 동사 bnh의 내러티브 시제 형태이다(흔히 와우-연속미완료형이라 불림).

구약에 총 373번 사용된 bnh의 기본 뜻은 build, 즉 '건축하다'는 의미로서 가인이 성을 쌓은 것(창4:17), 인류가 바벨에 성읍과 탑을 건설한 것(창11:4-5),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여 성읍을 건축

당연히 사용하게 되는 단어다. 문제는 창세기 2장의 문맥이 성의 건축이 아닌 여자의 창조라는데 있는 것이다.

이제 bnh가 사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맥을 살펴보자. 바로 성전과 제단을 지음이다.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건축 전반에 대한 묘사는 bnh동사를 무려 2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왕상6:1-2).

성전 다락의 건축(왕상6:5), 안벽을 입힌 것(왕상6:15), 지성소와(왕상6:16) 안뜰을 만든 것(왕상6:36) 모두 bnh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여호와와 성전의 기초를 놓은 자들을 일컬어서는 bnh의 분사형을 사용해 "건축자"(habbōnim)라 했다(스

가장 처음으로 지으신 것이 다름 아닌 하와였다는 것이다(창2:22).

아담과 짐승과 새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빚듯 만드신(wayyiser, 창2:19) 것과는 달리 여자는 하나님께서 성을 건설하시듯, 궁을 세우시듯, 왕가를 일으키시듯, 그리고 성소를 지으시듯 지으셨다(wayyiben)는 말씀이다.

이제 "갈빗대"라 번역된 ṣēlā '에 대해 살펴보자. 구약에 총 40번 사용된 이 단어는 그 중 36번이 성막 및 성전 건축과 관련해 사용되었고 한 번 솔로몬 궁의 "기둥"으로(왕상7:3), 한 번 산 "비탈"(삼하16:13)로, 그리고 두 번 아담의 "갈빗대"(창2:21-22)로 일컬어지고 있다. 성막 및 성전의 문맥에서 ṣēlā '는 다음을 가리키는

보자. 앞서 살핀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부여해 풀어 옮기면 다음과 같을 수 있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성막과 성전의 면을 입히는 자재(ṣēlā ')를 취하시어 성소를 지으시듯 여자를 지으셨다'(wayyiben). 이때 그 앞 절에서 이르기를 아담에게서 ṣēlā '가 취해지기 위해 아담은 "깊이" 잠들어서 했으며 취해진 부분을 대신 살로 채우셨다 했으니(창2:21) 곧 그의 몸이 찢겨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담의 상함으로 성전과 같은 신부가 탄생했다는 이해가 가능해진다. 어쩌면 이러한 이해가 다음 구절의 배경을 이루는지도 모른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갈빗대'에서 취하신 것같이 하와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교 구약학교수)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산만한 시대, 집중력을 키우는 비결

산만하다는 것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듣지 못하고 주의력 없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곧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열심히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임을 반응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 마디로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듣고 자기 때를 잘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산만한 행동을 보면 "왜 이렇게 산만하니? 왜 집중하지 못해?"하고 속상해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집중하지 않을 때마다 일일이 꾸중하지 마세요. 호기심이 많고 산만한 것은 꾸중이 아니라 훈련과 가르침으로 집중력을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주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경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좋은나무성품학교'에서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경청하는 성품을 가르칩니다. '경청'은 모든 좋은 성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았을 때, 가정에서 어떻게 경청을 키울 수 있을까요?

1단계, 자녀에게 집중력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잠2:2)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라고 말해 줍니다.

2단계, 집중력과 산만함에 대해 알려줍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열심히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겠니?"라고 묻고 자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단계, 자녀가 집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자녀의 기도가 끝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OO이가 앞으로는 엄마, 아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어린이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OO이를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OO이가 무슨 일이나 집중을 잘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경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녀임을 알려주세요.

4단계, 자녀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방해했다면 미안하다는 말로 직접 용서를 구하도록 합니다.

자녀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일관되고 안정된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경청의 아버지이십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할 때 자녀도 부모의 모습을 통해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는 깨닫는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goodtreeusa@gmail.com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주어가도록 창조 '건축' (bnh)의 근원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지으신 것이 하와

한 것(민32:36, 38), 다윗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 다윗 성을 둘러쌓은 것(삼하5:9), 느헤미야의 인술 하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것(느3:1-3) 등을 포함해 이 동사의 가장 주된 기능은 성의 건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어서 bnh는 건물을 짓는 것을 뜻한다. 야곱이 숙곳에 자기 집을 지은 것(창33:34),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왕궁을 건축한 것(왕상7:1), 아합이 이스라엘에 상아궁을 건축한 것(왕상22:39), 포도원에 망대를 쌓은 것(사5:2), 지시어는 전쟁시 성을 포위하기 위해 토성을 쌓는 것(렘52:4)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째서 건축을 뜻하는 동사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채택된 것일까? bnh가 특별한 동사는 결코 아니다. 성을 건축하고 궁전을 지으며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3:10).

제단을 쌓는 것과 관련해서는 bnh의 역사가 참으로 길다. 노아에서 시작해(창8:20) 아브라함(창12:7, 8; 13:18; 22:9), 이삭(창26:25), 야곱(35:7)을 거쳐 모세(출17:15; 24:4), 여호수아(수8:30), 기드온(삿6:24), 사무엘(삼상7:17), 다윗(삼하24:25), 엘리야(왕상18:32), 그리고 예수와와 스룹바벨(스3:2)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제단을 쌓은 역사를 성경은 모두 bnh로 적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지는 성읍과 궁과 집과 예배의 터가 사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계시가 우리를 놀라게 한다: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암9:6),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지으셨도다"(시78:69), "예루살렘을 세우시며"(시147:2), "시온을 건설하시오"(시102:16), 다윗에게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삼하7:27) 말씀하셨다. 이런 모든 '건축'(bnh)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 사용된다: 언약계의 이"쪽"과 저"쪽"(출25:12), 성막의 이"쪽"과 저"쪽"(출26:26-27), 지성소 휘장 바깥 북"쪽"과 남"쪽"(출26:35), 번제단의 양"쪽"(출26:35), 분향단의 양"쪽"(출30:4), 솔로몬 성전 다락의 "갈빗대"(왕상6:5), 성전 안벽을 입힌 백향목 "널판"과 마루를 놓은 잣나무 "널판"(왕상6:5), 성전 문의 두 "짝"(왕상6:34) 등. 그리고 이런 묘사는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에서도 계속되어진다.

정리해보자면, ṣēlā '는 성막, 성전, 제단의 면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이며 경우에 따라 그 면을 잇대어 만들어진 성전의 공간, 또 그 성전의 면을 만드는 자재 자체를 일컫기도 하는 말인 것이다. 이처럼 열이 면 아홉 성막과 성전건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성전건축 전 문용어가 하와와 창조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그럼 이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오"(창2:22)로 돌아가

같이 하라"(에5:25).

이제 정리해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오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창2:22-23).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류의 첫 가정의 탄생을 본다. 그리고 앞서 살핀 내용을 토대로 할 때 성전의 시작을 또한 본다. 시내산에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시온산에 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주어 가도록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는 오늘도 친히 모퉁잇돌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듯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에2:20-22).

spark4@gordonconwell.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세미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뉴욕목양장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뉴욕새벽별장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월-토)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45 영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뉴욕주산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7: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강좌: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강좌: 오후 1: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
베이스айд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강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건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어린이개척교회 담임목사: 유승혜 E.M.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	은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위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오전6: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리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8:30(토) 금요성경강좌: 매일 셋째, 셋째, 다섯째, 다셋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성경강좌: 목요일(금) 오후 7:3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야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남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시45분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하와이 행복양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임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아)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멕시코 현지인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연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어한인교회)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2)-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코비드에 감염되거나 생명을 잃고 있으며, 강대국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며, 인종 간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위기들로 인하여 또한 수많은 사업체들과 일터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어 교회도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 두 번째는 지혜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한다(엡 5:15-17).

지혜란 무엇일까? 먼저, 지혜는 피를 푸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보통의 능력으로는 풀어나갈 수 없는 것 같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과 미국 사이에서 힘든 과제를 겪어내고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인종과 종교와 민족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일은 결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풀 수 없다.

또한 지혜는 사물이나 사건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능력이다. 미디어에 떠도는 수많은 뉴스를, 한국과 미국 대통령 선거 시에 떠도는 수많은 음해와 공격들, 코비드 백신에 관한 수많은 소문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없이 이런

문제를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

지혜는 또한 어려움과 위협을 이겨내는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셨다(마10:16). 한국적인 표현이라면 ‘미꾸라지처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뱀은 위기를 만나면 가시덤불 사이로 피하며 아무런 상처 없이 위기를 무사히 빠져나간다. 실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없이 이 시련의 때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삶의 태도나 모습 자체를 말하기도 한다. 성경은 인내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약1:4), 스스로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며(잠3:7), 절제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한다(약3:3). 실로 지혜는 위기를 이겨내는 힘이다. 우리에게 언제 위기가 닥쳐올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겸손과 절제의 지혜로 우리

에게 닥쳐오는 위기들을 잘 이겨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미래를 예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한다(잠6:6).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기를 밤새도록 기다렸다. 신랑이 새벽 즈음에 왔다. 그랬더니 다섯명의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이 올 때 등불이 꺼져서 마중 나가지 못했고, 다른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예비하여서 신랑을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미련하다고 말했고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들을 슬기로운 사람으로 분류했다. 세상 사람들은 이쁘냐 아니냐, 잘났냐 아니냐로 사람을 구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를 예비하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로 사람을 구분한다.

이 시대는 매우 혼란스럽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자신에게 죽음이, 종말이 언제 올지를 알고 예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지혜 중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잠1:7)이라고 말씀한다. 사람은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지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곧, 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 암울한 시대에 온 세계가 죄악과 부도덕함으로 달려가고 있고 수많은 위협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승리하기를 기도 드린다.

dik0184@yahoo.com

조나단 에드워즈를 왜 연구하는가? (하)

에드워즈대학교 총장, 예일대 에드워즈센터 상임연구원 정부홍 박사

사라 피에르폰트와 결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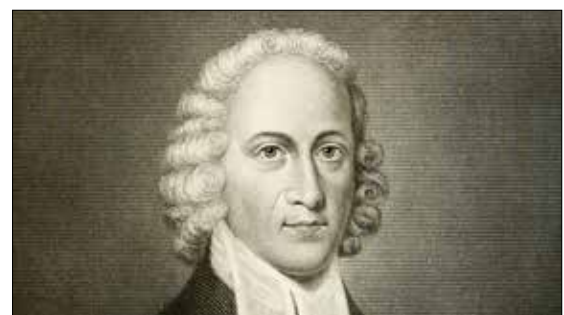
그 이후 그녀는 예일대 설립자 중 한 사람이요 뉴헤이븐교회의 목사였던 제임스 피에르폰트의 딸 사라 피에르폰트와 결혼했다. 그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4세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상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지만 에드워즈는 비범한 여자였던 것을 일찍부터 알아 차렸다. 4년간의 연애를 한 후 1727년 2월에는 자기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가 시무하시는 노스 앰튼교회의 부목사로 안수 받고 7월에는 뉴헤이븐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2년 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하며 큰 부흥을 1734년과 1740년에 두 차례 경험하였다. 그것이 미국교회사에 등장하는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서 소위 “미국영적대각성”이다.

영국 청교도들이 미신대륙에 정착한 이후 100년 동안이 지난 날 때 이민 1세대들의 신앙심과 도덕성은 점차 쇠퇴하고 자유주의 신앙과 사상들이 만연하고 2,3세대도 그런 시류에 합류하여 신앙적 해이와 도덕적 타락이 창궐해가고 있었다. “젊

은이들은 허다하게 밤이면 쏘다니며 술집에 가고, 음란 행위에 빠져 미쳐 있었다...”고 에드워즈가 목격한 대로 기술했다.

그때에 뉴저지 지역에서는 데오도르 프릴랭귀어젠 이라는 화란에서 이민 온 목사께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부흥



조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

흥의 불길이 점화되어 인근 지역으로 그리고 뉴잉글랜드 전역으로 확대되어갔다.

그때에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이란 설교를 하며 여러 곳에서 부흥을 일으켰다. 급작스럽게 사람들이 변화되어 술집은 텅텅 비고 예배당은 구원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단기간 내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수 없는 많은

교과 정치와 문화 그리고 전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올바른 설교자들과 지도자들이 요청되어 유명대학들 프린스턴(1746), 다트머스(1769), 브라운(1764), 콜롬비아(1754)가 이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사회와 정치에 적극적 참여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흥의 불길은 희미하고 또 탈선하여갈 때 이미 화석화된 회중들은 22년간의 수고하며 대각성으로 인도했던 에드워즈를 1750년에 230 대 23이라는 불신임으로 해임시켜서 차로 한 시간 넘게 서쪽에 위치한 스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 설교로 뉴잉글랜드 부흥 일으켜 다양한 교파출현, 인디언선교운동, 사회봉사, 노예해방운동...미 독립건국정신 토대 놓아

회 사역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으며, 에드워즈도 기도하며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설교를 연속으로 하였을 때에 사람이 감화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또 휘필드 목사가 방문하여 설교함으로써 에드워즈가 시무하던 마을에서 큰 부

신자들이 구원받았는지 자문하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요청하였다.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밤낮으로 근심하고 우울해지기까지 했다.

이런 회심과 회개와 부흥은 뉴잉글랜드 사람들의 삶과 중

람 에드워즈도 그 당시의 전염병 천연두주사 부작용으로 소천하면서 다음 같이 유명한 유언을 남겼다.



정부홍 박사

브릿지 라는 인디언 마을에서 선교사 및 교사로 활동하며 그곳에서 중요한 결정을 곧 “자유주의(1754, 새물결출판사, 2017) “천지창조의 목적” 및 “덕의 참된 본성(탈고1757, 발행1765) “원죄론(탈고1757, 발행1758)을 마치고 1757년 12월 프린스턴대학의 학장으로 초빙 받고 3개월 만에, 코로나 펜데믹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목숨을 잃은 것처럼

“사랑하는 딸 루시(Lucy, 5th)야, 이제 잠시 후면 너를 떠나야 하는 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가장 친근한 사랑을 전한다오.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비정상적인 연합(uncommon Union)은 내가 믿기에 영적인 성격의 것이었으므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큰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기를 희망한다. 내 자녀들이여, 지금은 아비 없는 자로 남게 되지만 이 일이 너희 모두에게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 장례식도 사위 아론 버러(에스터, 3th) 같이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조그만 여분의 금전이라도 남게 될 터인데, 그것으로 자선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Timothy Edwards, "Some Things Written Concerning My Very Dear and Honored Father, Mr. Richard Edwards"(Short Version), RELife edited Family Writings and Related Documents, Ed. Jonathan Edwards Center, Works Online Vol. 41.

PeterBHjung@gmail.com

에드워즈의 마지막 유언 (Last Will)

Worldwide Church Directory. Title: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churches like Galbraith, Danjok, Gongmaeri, etc.

동부교계 게시판

컴퓨터 네트워크 강좌

네이버플러스 재단이 주최하는 CCNA(Cisco Certified Network Associate)-컴퓨터 네트워크 강좌가 열린다. 초급과 중급이며 IT관련 직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다. 대학생들도 환영. 3월 5일(토) 오전 10시-12시(EST) 오리엔테이션과 첫 강의가 온라인으로(https://acecloud.webex.com/acecloud/j.php?MTID=maa70cdc_d107e65f5beacdb21aebb68839) 진행된다. 참가 전 참석여부를 알려야 한다. 강의는 4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열리며 선착순 20명, 수강료는 50달러(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수강료 보조프로그램이 있다)

▲문의: (201)461-0909 www.neighborplus.org

메타버스 시대 건강한 자녀 키우기 자녀교육세미나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메타버스 시대 건강한 자녀 키우기 자녀교육세미나”가 2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미동부시간) 온라인으로 열리며 강의와 함께 토론 Workshop 등이 진행된다. 등록비는 120달러이며 <https://forms.gle/RuZW-MeRP2WbAiqFy7>에서 등록할 수 있다.

▲문의: (646)300-4790 www.woolarius.org

디딤돌아카데미 불학기 개강

디딤돌아카데미(원장 양춘길 목사)가 뉴저지 지역교회 평신도사역자, 소그룹리더를 대상으로 하는 평신도 리더십 과정을 3월 10일(목), 저녁 7시30분에 대면강의로 개강한다. 2022년 불학기는 12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열리며 온오프로 진행된다. 강사는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 담임), 한동원 목사(뉴저지그레이스장로교회 담임), 신태훈 선교사(GUM선교회 사무총장), 박길재 목사(티베갈리교회 담임)가 맡는다. 등록비는 개인 100달러, 부부 150달러. 등록링크 <https://forms.gle/x1sP3635n2BZPE5M9>

▲문의: (201)739-7733 서병용 사무처장, jeonyunho@gmail.com 전원호 총무

양춘길 목사 출판기념회

뉴저지 필그림선교교회 양춘길 목사의 저서 “미셔널처치를 꿈꾸라” 출판기념회가 2월 27일(주일) 오후 5시 본 교회 선교센터에서 열린다.

▲문의: (201)461-1225

오연롤 권사, 더나눔하우스에 1만불 쾌척

미주한인노숙인 비영리기관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가 노숙인센터 구입을 위한 모금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0일 오연롤 권사(91세)가 1만 달러를 웰터운영후원금으로 전달했다(사진).

박성원 목사는 61년전 미국에 이민온 오 권사는 반지하 아파트에 살면서 근검절약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지난해 4월에도 10만 달러를 웰터구입 모금에 후원했었다고 밝혔다. 그 후 9월 1일 뉴욕에 불어닥



친 폭우로 반지하 아파트에 물이 차면서 갈 곳이 없어져 더나눔하우스에서 한달간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루 3회 예배를 드리고 교육과 전인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회복돼 자립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더 갖게돼 이번에 1만달러를 더 후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더나눔하우스)

“온 인류의 소망 예수” 드러내자

KWMC, 9차 세계한인선교대회준비 의장단 회의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가 주최하는 제 9차 세계한인선교대회를 위한 의장단 회의가 지난 2월 7일부터 사흘

간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예수서원(원장 고석희 목사)에서 개최됐다.

대회는 오는 7월 12-14일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 류영렬

목사)에서 “온 인류의 소망 예수”(롬15:12) 주제로 열린다. 이번 의장단 회의에서는 이번 선교대회가 온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하자고 결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 급변하는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다하도록 가슴 뜨거운 선교대회가 되도록 잘 준비하자. △ 선교대회를 위해 의장단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교회들을 동원과 재정후원을 하여 선교사들이 잘 참가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되는 대

회가 되도록 하자. △ 각 지역교회에서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기도하자고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경건회에서는 안영섭 목사가 “온전한 헌신”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KWMC는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운동을 촉진, 협력, 조정함으로써 세계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빌리그래함 센터(Wheaton, Illinois)에서 열린 제 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선교대회를 개최돼 선교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예정됐던 9차 대회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연기돼 올해 열리게 됐다.

(기사제공: KWMC)



KWMC 의장단회의 참석자들이 예수서원에서 기념촬영했다.



뉴욕교협이 주최한 구정 민속놀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뉴욕교협 되길”

뉴욕교협, 회원부부 초청 구정 민속놀이 친교모임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이 주최한 구정 민속놀이 친교모임이 2월 10일 오전 10시30분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체육관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총무 임영건 목사 인도로 기도 부회장 이준성 목사, 설교 회장 김희복 목사, 축도 경경희장 방지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희복 목사는 “형제와 연합”(시133: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형제간의 연합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복 있는 뉴욕교협이 되기를 소원했다. 이어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통해 복 있는 뉴욕 교협, 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2부 구정 민속놀이는 이진아 목사 사회로 시문학부와 조의호 목사가 기도했으며, 이종식 목사가 환영 및 인사를 통해 지난 교협 신년하례 때 목회자상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부족한 상인 줄 알고 받았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베이사이드장로교회는 이날

선물과 도시락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전달했다.

민속놀이는 이진아 목사와 함께 수석협동총무 하정민 목사, 부회계 박환우 목사, 회계 이광모 장로 등이 각 순서를 진행했다. 각 경기당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기차기: 1등 김희복 목사, 2등 김일태 이사장, 3등 이종선 목사 △오자미: 1등 배영숙 사모, 2등 조미숙님, 3등 안순영님 △투호-여성: 1등 하정민 목사, 2등 이진아 목사, 3등 김순자 목사/남성: 1등 이만호 목사, 2등 이종선 목사, 3등 방지각 목사 △팔씨름: 1등 황봉선 장로, 2등 김영철 목사, 3등 김희복 목사 △웃놀이: 1등 손운아 송영희 글로리아박 안순영 팀, 2등 이만호 김영철 조의호 목사, 황봉선 장로 팀, 3등 안경순 목사, 한영숙 임한나 사모팀.

이어 이진아 목사 사회로 퀴즈게임을 통해 10명에게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모임의 퀴즈만 아니라 모든 게임 선물은 하정민 목사가 후원했다.

시상식 후 김일태 이사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은퇴 이문주 목사, 취임 송인철 목사

앰허스트 시온교회 담임목사 은퇴 및 취임예배

앰허스트 시온교회 담임목사 은퇴 및 취임예배가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새 담임 송인철 목사는 “감사할 것들이 많다”며 “하나님과 목회방향을 잡아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앰허스트시온교회가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지난 35년간 이문주 목사님과 이운영 사모님께서 이곳에 심어오신 주께서 주신 꿈을 아름답게 가꾸고 세워나가도록 하겠다”며 “교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동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주 목사는 “은퇴식을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며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35년 동안 어려운 역경가운데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며 “앰허스트시온교회가 송인철 2대 담임목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켄 스텐포드 목사(나사렛교



앰허스트 시온교회 담임목사 은퇴 및 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회 뉴잉글랜드지방회 감독) 인도로 시작된 취임식은 신민규 목사(대한기독교 나사렛성결회 한국총회 감독/상암동교회 담임),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담임)가 영장으로 취임 격려사를 했으며 송인철 목사가 취임사를 했다.

송인철 목사 인도로 시작된 은퇴식은 켄 스텐포드 목사가 축사했으며 이성현 목사(미주한인나사렛성결회 총연합회장)가 축사했다. 이어 공로패 수여 시간을 가졌으며 박종근 목사(모자이크장로교회), 정훈태 박사(전 백석대학교 선교학 교수, 현 아프리카미래협회 회장, 구제난민연구소 소장),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가 영상으로 축사했다.

이어 이문주 목사가 은퇴사를 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이문주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문주 목사 인도로 시작된 주일예배는 이만종 장로가 기도했으며 켄 스텐포드 목사가 ‘추수의 놀라운 진리(요4:34-4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킹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353.2424 뉴저지 | 201.945.2009

차드선교, 미자립교회 돕기 계획

OC장로협 제8대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 제8대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3일 오후 4시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8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생수 장로는 “장로협은 거의 모두가 은퇴 장로로 구성돼 그동안 단기선교를 해왔다”며 “올해는 소망소사이어티와 함께 차드 선교를 할 계획이고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웃과 미자립교회를 도우려고 한다. 함께 힘 합쳐 하나님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임 정재영 이사장은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감당해야 할 것이다. 복음의 풍성한 열매 맺는 장로협의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수 장로(부회장) 사회로



OC장로협 제8대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열린 이취임식은 이화양상블이 특송했으며 황치훈 장로가 이임사, 김생수 장로가 회장 취임사, 정재영 장로가 신임 이사장 취임사를 했다.

이어 황인철 목사(홀러톤장로교회), 심상은 목사(OC교회), 영김 연방하원위원, 권석대 장로(OC한인회장)가 축사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권면과 취임자를 위한 기도를 인도

했다.

이어서 아리랑합창단이 축가를 불렀으며 한창훈 장로가 내빈인사하고 윤성원 목사(OC교회 증경회장)가 축도했다.

한편 정창섭 장로(부회장)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박재만 목사(OC교회 부회장)가 기

도했으며 신용 집사(OC전도협연합회 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최현규 형제(남가주동신교회)가 특송했으며 백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요12:2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백정우 목사는 “한알의 밀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해도 많은 열매 맺게 된다는 꿈과 비전을 가가져야 하는데 이 꿈과 비전이 OC장로협에 반드시 있을 줄 믿는다”라고 말했다.

백 목사는 “장로의 자리는 특별한 자리다. 교회에서 더 이상 올라갈 것 없는 자리다. 하지만 장로는 자리가 아닌 직분이다. 협의회 한분 한분이 계속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소원한다”며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주의 종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OC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교회(회장 심상은 목사)가 주최하는 제 8차 OC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2월 26일(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단체와 단체장은 RSVP(socalfgc@gmail.com)를 해야 한다. ▲문의: socalfgc@gmail.com

한인기독합창단 합창단원 모집

한인기독합창단(단장 김은영, 부단장 백원준)이 2022년을 맞아 제갈소망 씨를 새 지휘자로 선임한 가운데 합창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인기독합창단은 미주 한인사회 형성 초기인 1984년 창립된 합창단으로 37년 동안 수많은 교회 합창곡, 오라토리오, 창작 성가, 칸타타 등을 연주해온 전통 있는 한인 합창단이다. 금년 가을에 열릴 62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대영광송(R. Bass 곡), No Time(S. Brumfield 편곡), There Is A Balm In Gilead(W. Dawson 편곡), 주를 봐요(정우진 편곡) 등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 명 성가, 가스펠 및 흑인영가 등 다양한 합창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합창단 연습은 2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6시45분 나성영락교회 교육관에서 진행된다. ▲문의: (213)503-0812

나성한인교회 영성세미나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주일오후 영성세미나를 2월 20일과 27일 오후 1시15분에 ‘그리스도인의 영성형성’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강사는 다니엘뉴먼 교수(아주사퍼시픽대학교). ▲문의: (323)221-9531

나성서부교회 김승곤 원로목사 별세

나성서부교회 김승곤 원로목사(사진)가 지난 2월 2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4세.

그동안 노환으로 자택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돼 병원 이송 후 3일 만에 별세했다. 유가족으로는 김사라 사모와 1남 5녀가 있다.

장례예배는 2월 12일 오전 11시 나성서부교회에서 교회장으로 거행됐다. 하관예배는 Covid 19로 인해 가족중심으로 장지인 로즈힐즈 공원묘지에서 드렸으며 조카 임정배 목사가 집례했다.

김승곤 목사는 1927년 10월 28일 평안북도에서 출생했으며 20세에 전도사로 부름 받고 고려신학교와 총회신학대학원을 거쳐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 부산과 서울에서 사역했고 50년전 도미 후 나성서부교회를 개

척했으며 11년 전 원로목사로 추대되기까지 목양 일념으로 이민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

국제성서대학을 설립해 후진들을 양성했으며 저서로는 ‘계시록 강해’ ‘사역자 훈련교재’ ‘왜 무천년주의는 성경적인가?’ ‘성경의 빛’ ‘요한복음 강해’ ‘계시록의 참뜻’ 등이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김승곤 원로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 신년부흥말씀집회에서 이철구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인생 GPS’ ..섬김으로 나아가라

벨리연합감리교회 신년부흥말씀집회, 강사 이철구 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 신년부흥말씀집회가 ‘인생 GPS’라는 주제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이철구 목사(남부플로리다연합감리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류재덕 목사 사회로 열린 6일 2부 예배는 박일수 권사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성가대가 특별 찬송했다. 이날 이철구 목사가 ‘섬김 II(행11:19-2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철구 목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능력 얻어서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섬김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 목사는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목적은 섬김이 돼야 한다”며 “섬김이 삶에 나타나면 사역이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고 어려웠던 것들 털어내고

꿈과 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의 최초 교회인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다”며 “하나님은 헤가 보이는 교회를 만들어가려면 섬세한 배려와 격려를 통해 여러 은사들이 골고루 발휘되게 해 누노빌시대 선교의 장이 되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구 목사는 “섬김의 극치는 선교하는 것”이라며 “주께서 오신 목적을 함께 나누고 주의 제자로 살려면 섬김의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모든 이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이철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에서 장순직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은혜 깨달을 때 터닝포인트 된다

은혜한인교회 신년축복성회, 강사 장순직 목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신년축복성회가 10일부터 13일까지 장순직 목사(원주드림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10일 저녁 7시30분에 열린 첫날 집회에서 장순직 목사는 ‘터닝포인트1(마20:31-3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 목사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예수님의 12제자는 비겁하게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간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실패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예수님의 제자선택 기준은 용기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었다. 오직 은혜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시대 미국은 지존의 땅 꿈의 땅이었다. 우리가 은혜됨을 깨

달을 때 터닝포인트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패착은 첫째 나의 자아상을 보지 못하는 것, 둘째 기도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 세 번째 열기다. 네 번째 믿음을 없이 보려는 결과다. 베드로의 터닝포인트의 중요한 키워드는 기도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다. 2022년 올 한해가 터닝포인트가 되기 원한다면 모아야 한다. 교회가 교회됨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돼야 한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K-Art: New Wind 특별전이 갤러리웨스턴에서 열렸다. 사진 오른쪽아래 원안은 특별전을 기획한 K-P갤러리 김숙기 관장이 최아숙 작가에게 부관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포즈를 취하는 장면

최아숙 부관장 임명식도 가져

갤러리 웨스턴, K-Art: New Wind 특별전

갤러리 웨스턴(관장 이정희)에서 ‘K-Art: New Wind(한국 예술 - 새바람)’이라는 주제로 10일부터 23일까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의 유망작가 50명을 초대해 뉴욕 첼시가에 위치한 K&P갤러리(관장 김숙기)와 협력으로 뉴욕에 이어 LA에서 여는 투어 전시회다.

김숙기 관장은 “지나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산마리노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다”며 “전시회를 열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찾아가는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고 이번에 LA에서 투어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이번에 참여한 작가들은 모두 한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며 “한국의 유망작가를 세계 미술시장의 중심

지인 미국에 소개하고, 이를 통해 K-art 붐이 일어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들은 아크릴, 사진, 한지공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13일 오후 3시에 열린 리셉션에서는 K&P갤러리 캘리포니아주 겸 본 갤러리 부관장 임명식을 가졌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최아숙 작가에게 김숙기 관장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아숙 작가는 본 갤러리 부관장으로 활동하게 되며 풀러턴에 K&P갤러리 캘리포니아 지관을 설립하게 된다.

한편 K&P갤러리는 3월 중에 샌디에고나 라스베가스에서 같은 주제로 전시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다.

▲문의: kandpgallery@gmail.com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전문 지도자를 배출했다

한인종교지도자 18명 수료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종료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한인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실시간 화상수업을 실시해 18명이 수료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40시간의 교육과정은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 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가정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캐서린 엄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종교기관”이라며 “그만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 종교지도자와의 협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 주 공식 인증기관이며 수강생 전원에게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이번 교육 수료생인 김윤성 사모는 “이번 교육을 받으며 가정폭력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배움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주위를 좀 더 돌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용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수료생인 크리스틴 리 수강자는 “내가 직접 실행할 수 있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가정폭력 피해자 돕기 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한인가정상담소는 40시간 교육과정은 물론 1박2일 목회자수련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인 종교지도자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고 있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cmf 2022년2월 정기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주님의 손’ ...성경에 답이 있다

CMF선교원 2월 정기예배, 설교 정우성 목사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 2월 정기예배가 지난 2월 5일 오후 5시 CMF선교원 홀에서 열렸다.

김철민 장로 사회로 열린 예배는 김유진 선교사(예멘)가 대표로 기도하고, 오현승 간사가 첼로 연주, 정우성 목사(남가주 광영교회)가 설교했다

정우성 목사는 ‘주님의 손(마 9:18-26)’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다양한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어떤 이는 이 상황이 기회라고 외치지만 어떤 이는 위기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다. 한 스

트레스 환자의 독백은 세상이 주는 인간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려 시도해 보았지만 그렇게 세상의 가이드를 따라 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답이 있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5분 간증을 했는데 김훈석 선교사(네팔), 박종진 선교사(이집트), 스티브보리슨 장로(MPAK)가 각각 5분 간증을 하고 엄영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예장통합, 아동세례 받은 어린이 “입교 안 해도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최근 아동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입교절차 거치지 않아도 세례 교인의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7~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례를 하기 위해 ‘아동세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지난 성탄절에 전국 주요 교회에서 아동세례가 처음 시행됐지만 동시에 이들이 별도로 입교를 받아야 세례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단 안에서는 아동세례를 받았더라도 입교가 필요하다는 이들과 아동세례자들에게까지 입교를 거치게 하면 유아세례와의 차별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입교는 6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세례를 받은 이들이 13세가 된 뒤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확정하는 절차다.

예장통합 임원회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헌법위원회에 헌법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아동의 경우 자유의지와 신앙고백에 근거해 아동세례를 실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세례 및 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례를 베풀 수 있다”면서 “동시에 아동세례를 받은 이들이 입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세례 교인의 자격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아동세례 입교’와 관련한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12월 아동세례 문답서를 펴내고 세례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했다. 아동세례 입교 논란이 종식된 만큼 교단 예식서 개정위원회가 조만간 아동세례 전반의 절차를 담은 예식서도 출판한다.

아동세례는 국내 주요 교단 대부분이 도입했다. 이미 예장합동과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

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등이 아동(어린이) 세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교단은 아동세례 시행에 앞서 2019년 유아세례자들에게까지 성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아성찬은 보편적 추세로 미국장로교회와 스코틀랜드교회는 각각 1983년과 1992년, 유아세례자를 포함한 모든 세례교인으로 성찬을 확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한성공회, 기독교한국루터회 등도 유아 성찬을 시행하고 있다.

유아성찬이 중단됐던 건 로마가톨릭의 영향 때문이다. 1214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화체설’이 공인된 게 유아성찬 중단에 계기다. 화체설은 성찬에 사용하는 성물을 주님의 실제 살과 피로 믿는 교리로 어린이들이 성찬식 중 성물을 흘리는 걸 막기 위해 성찬 참여 나이를 성인으로 제한했다. 개신교는 ‘기념설’을 택하고 있어 이런 우려에서는 자유롭다.

중국의 종교통제...전세계 ‘중국인 선교’ 기회로

한복협 월례주제발표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중국과 중국교회’

중국이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 무대에서 ‘개막식 한복 논란’ ‘잇따른 판정 논란’ 등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슬로건으로 내건 ‘함께 하는 미래(Together for a shared future)’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중국과 중국교회’를 주제로 한 발표회가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열렸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최이우 목사)가 진행한 발표회에서 마민호(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사회주의 종교관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왜곡된 의식형태’로 보기 때문에 종교를 말살의 대상이 아닌 교화의 대상으로 본다”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교회와 선교를 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선교 전문가들은 중국 내 기독교인을 최대 1억5000만~2억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중국이 현재의 기독교인 증가율(연7~8%)

을 유지했을 때 2030년이면 3억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교회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내 기독교인의 일상은 녹록지 않다.

마 교수는 중국의 기독교 통제 정책인 ‘동이타(動而打) 전략’을 소개하며 “중국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자들을 본보기로 통제하는 대중통제 방법을 사용해 왔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는 가정 교회 지도자들이나 선교사들을 주기적으로 통제하고 추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종교에 관용적이었던 정책 기조를 바꿔 대대적 통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이 곧 종교가 사회주의 이념과 일치해야 하며 공산당의 지도력에 따라야 한다는 ‘종교중국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종교 통제를 세계 선교를 위한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마 교수는 “시진핑의 선교통제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발적 철수를 했지만 현 상황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면 이 또한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선교를 ‘지역 개념’에서 ‘유사그룹 개념’으로 바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인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교회의 길’을 주제로 발표한 함태경(CGNTV 경영본부) 본부장은 ‘중국형 셀교회’를 중국 복음화의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강화된 통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각각의 공동체가 강력한 유기체가 되도록 영적 영양분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참된 공동체로 사회 안에 녹아들어 간다면 당과 사회에 조응하는 기독교를 주문하는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통해 외래교회가 아닌 사회문화적 파트너이자 이웃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 석학모임 ‘한국기독교한림원’ 출범

4월10일 창립감사예배 및 학술대회, 원장 정상운 전 총장

기독교 석학의 모임인 한국기독교한림원(The Korean Academy of Christianity)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희성빌딩 아트홀에서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갖고 출범했다.

발기인들은 오는 4월 10일 경기 안양시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창립 감사예배 및 학술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학술대회 주제는 ‘21세기 한국교회, 도전과 극복’이다.

이 단체는 각 분야의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 석학을 추대해 연구, 교육 및 출판 활동을 전개한다. 또 기독교 석학의 경륜과 혜안을 모아 한국교회와 사회를 갱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 해외 선교사, 신학생 등을 한 기독교 영성교육을 실시한다. 기독교 연합단체와 학회, 선교회(교회)와 연계해 각종 사업을 전개한다.

정회원은 기독교 각 분야에서 현저한 학문적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기독교 교수, 최고 권위자를 임원회 심의를 거쳐 추대한다. ‘한림원상’ 수상자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초대 이사장은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목사를 추대했다. 원장

은 정상운(전 성결대 총장) 성결대 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모임에는 신임 정 원장을 비롯 박응규 개혁신학회장, 안명준 평택대 명예교수, 이동주 바

‘7대 악법’ 연합 대처한다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회의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제18차 대표자회의가 8일 인천베스트웨스턴 하버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수도권기독교연합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7대 악법에 대해 연합 대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대선후보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3·1운동 103주년을 맞아 전국교회연합기도회를 오는 24일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1부 개회예배와 2부 오찬회의로 진행된 행사에는 각 지역별 기독교연합회 대표, 한국교회총연합회 전직회장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 2022 한국교회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 이상문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등 기독

이어하우석회장, 이상구 백석대 석좌교수, 임성택 전 KC대 총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석했다.

김원평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 서정숙 강릉영동대 명예교수, 이광희 평택대 교수, 김선배 한국침례신학대 총장 등도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교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소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종교인소속과세 문제에 적극 대처하면서 역량을 키웠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며 “새해에도 든든한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극복 ‘차별금지법 반대’ ‘대선과 공명선거’ ‘교회의 연합과 부흥’ ‘사명과 세계 선교’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진행됐다.

인사말을 전한 이 목사는 “한국교회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인소속과세, 지방교회의 연합을 위해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가 앞장서 온 것에 감사하다”며 “부활절예배준비위원회도 연합회와 협력해 성공적인 예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리서치 ‘점에 대한 인식조사’

개신교인 4명 가운데 1명꼴로 최근 5년 사이 점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신교인 3명 중 1명 정도는 점에 대해 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회자나 부모 등의 지도와 권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8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점, 신년 운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점(사주·타로·관상·신점 등)을 본 경험이 있는 국민은 전체의 41%였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8세 이상

한 이유 없이 봤다는 응답도 28%를 차지했다. 점을 본 경험자들은 사주팔자(49%) 토정비결(40%) 타로카드(31%) 순으로 많이 접했고 스마트폰 무료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58%)를 가장 많이 이용했다.

이에 대해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는 “신년 운세나 점을 보는 건 미신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성경도 명확하게 지적(신18:9-12)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생의 경험이 적고 격정과 고민이 많은 20-30대

개신교인 4명 중 1명 “5년새 점 본 적 있다”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남성(35%)보다는 여성(48%)이 많았고, 60세 이상(29%)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40% 이상이 점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점을 본 이유로는 ‘전반적인 인생사나 운세, 일상생활 관련 때문’이 52%로 최다였다(복수응답). ‘재미로, 특별

종교별로는 개신교인 가운데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천주교인은 39%였고, 불교인은 62%로 가장 많았다. 기타 종교인과 무종교인은 각각 18%, 42%를 차지했다. 특히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3명 정도(31%)는 점에 대해 ‘미신으로 보기가 어렵다’거나 ‘모르겠다’고 답

젊은 세대들이 심심풀이라도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철저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8-29세의 경우, 2명 중 1명꼴(49%)로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30-39세는 54%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디아스포라 한인위해 활동전개

세기총, 한국 공명선거 캠페인 적극참여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뜻을 밝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에게 공명선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기총은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 이하 세계성시화)가 지난 1월 17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에 뜻을 같이하고 양 단체가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양 단체는 지난 2월 9일 세기총 회의실에서 공명선거 캠페인과 관련, 모임을 갖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SNS를 통한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이날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는 “유권자의 귀중한

한 표만이 우리의 잘못된 정치 행태를 확실히 바꿀 수 있다”면서 “거짓이 판치는 선거판을 바꿔 무엇보다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에 대해 설명한 세계성시화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해외 한인교회를 아우르는 세기총이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전개하고 있는 제20대 대선 투표참여 공명선거 캠페인에 동참해 주셔서 큰 힘이 되고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선이 끝난 후에는 당락에 관계 없이 결과를 승복하며 국민화합을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특히 세기총이 중심이 되어 해외 기독교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한인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호동 선교사(불가리아)는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투표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높다”면서 “그러나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고국 사랑을 실천하는 선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비방글 등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건강한 선거문화 정착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공명선거 캠페인에 세기총은 물론,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교회 차량용 스티커, 선거법 지침을 담은 소책자, 전국 교회 등에 부착할 현수막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세기총)

“사이비 집단 정치권유착 끊어달라”

전피연 대선 후보 캠프 앞 회견 열고 정책마련 촉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 피해자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이단·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치권 유착을 끊어줄 것과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10일 서울 여의도 일대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민당, 정의당 대선 후보 선거 캠프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각 캠프 건물 앞에서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한 신강식 대표는 “종교의 자유라는 핑계로 시기마다 정치권에 기생해 세를 불려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코로나19 시기에도 그 이빨을 감추지 못하고, 선량하고 종교심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가정을 처참히 짓밟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심각한 사이비종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100만 명의 사이비종교 피해자와 배수 이상의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이 아직 없다”며 “피해 가족은 사이비종교 집단이 다시는 정치권에 접근, 기생하며 자신들의 부와 신도 수를 늘리며 국민의 피눈물을 짜내지 않도록 정치권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전피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사기 포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각종 위장 봉사단체, 위장 평화단체, 위장 사이비종교 단체, 위장 시민단체 등을 결성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척하며, 차기 정권에 기생하려는 각종 유사 사이비종교 집단으로 인한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반사회적 집단의 양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피해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종교 사기 범죄 예방 협업체를 구성해 지역민이 이단 종교를 감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종교를 빙자해 개인정보 불법 취득, 가출·이혼 조장 등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반사회적 활동을 벌이는 사이비종교 집단에 대해 지자체에서 감시, 경고 및 활동 규제에 나서기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사기 포고 방식에 속아 해당 사이비종교를 위한 활동을 하며 금전적·물적·신적 피해를 봤을 때는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요청도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각 캠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이비종교 정치권 유착 근절 촉구서’를 전달했다. 전피연 관계자들과 직접 만난 더불어민주당 측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법 사항은 강력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 유산 기부운동 시작합니다

‘브리지소사이어티’ 출범식

한국교회가 유산 기부운동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자녀 없는 1인 가구의 증가 속에서 새로운 자선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를 비롯해 소망교회, 높은뜻송의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청주 상당교회, 경산중앙교회, 대전 산성교회 등이 동참한다.

유산 기부운동은 선진국에서 이미 기부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국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산 기부운동이 재산의 사회 환원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한국의 자선 문화를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 운동이 확산돼 유산 기부문화가 정착되면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교의 창 (18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선량(善良)들

인간사회에서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항상 힘겹게 사는 자들이 있어왔다. 저들 중에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 많았다. 몸을 질병에 걸려 고통 속에 있는 자, 사업에 실패하여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자, 귀신들려 웃도 입지 않은 채 주위를 배회하는 자, 가정파괴로 인하여 가슴 속에 응어리고 품고 사는 자, 마약, 알코올, 도박 등에 중독되어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 나이 들어 자녀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채 연명하고 있는 자 등 우리 주변에는 마지못해 사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안목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눅4:18). 여기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세도가나 문벌 좋은 자나 가진 자들보다 세상에서 버려진 무지렁이 같은 민초들을 중점적으로 도우셨다. 죽은 나사

사역을 위해 아담한 센터를 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다. 산과 들, 바닷가 등을 가리지 않고 양떼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복음을 선포(Preaching)하셨고 교육(Healing)사역을 하셨다.

2. 송고한 의사상을 대표하는 허준

https://ko.wikipedia.org/

방영되었다. 이 소설에는 의사에 대한 작가의 이상향이 드러나 있다. 그것은 주인공 허준이 과거시험을 보러가던 도중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 시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ic Oath) 선서문과 맥을 같이 한다. 의사로서 출세보다 환자를 살리는 일을 우선시 한 이 행위는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다주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송고한 일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비록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지만 그 행위는 예수의 심장을 지닌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이 시대에 허준 같은 심성을 지닌 의사들은 몇이나 될까?

3. 예수의 심장을 지닌 자의 사례

1990년대 “후맘”은 A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약250명 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된 사연은 남편이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 버렸기 때문이었다. 가방 끈이 짧은 사모는 설교하다

한 번은 교인들이 사모의 두 아들 대학등록비를 모아 가져왔다. 후맘은 화를 내며 “비록 내가 과부라 할지라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어찌 내 아들만 챙길 수 있겠나?”라며 받지 아니했다. 결국 그녀는 과로한 탓에 병을 얻게 되었고 시골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후맘은 자기 안위를 전혀 생각지 않고 양떼들을 살렸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여자부였다. 우리 속담에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란 말이 있다. 다행히도 그 두 아들은 부모의 소원으로 학업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어 크게 쓰임을 받고 있다.

4. 본질에 충실해야 할 사역

오늘날 목회와 선교의 방향은 어떠한가? 우리의 톨 모델인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은연중에 주님의 안목보다는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있다. 그것은 부흥이란 명목아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많은 잃은 양보다 착하고 신

님의 말씀으로 저들 심령을 쫓아야 한다. 결코 안전한 터전에서 선비처럼 아니 번사들처럼 번드르르한 말로는 영혼들의 내면을 두드릴 수 없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들만의 게토(Ghetto)를 과감히 허물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못 심령에게로 나가야 한다. 모이는 것은 흩어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맺음 말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한 자들이다. 내 자가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자이다(갈2:20). 이로서 우리는 주님의 심장 박동소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산술적인 수치에 결코 연연하지 아니했다. 그 분은 사역적 안목을 시종일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사방에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나섰다. 오늘날 목회자와 선교사는 주님의 이 사역패턴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어렵고 혼돈스러울수록 영육 간에 병들거나 방황하는 자들이 많기 마련이다. 누가 저들 민초들을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가? 주님의 심장으로 박동하는 선량들만이 저들의 아픔을 감당할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다. 실제 했던 후맘이 그러했다. 나아가 비록 소설 속의 이야기이지만 허준의 삶도 일맥상통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교회를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었다. 크리스천은 교회의 빛과 소금인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에 밝힐 뿐이다.

jsong007@hanmail.net

주님은 그 사역방향을 심령이 갈한 사람들 위주로 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사모하며 사랑했다. 사역은 예수의 심장 박동소리에 맞춰 중심을 쏠을 때 열매가 있다.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반인들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심령에 평화가 없다. 인간의 번뇌와 고통은 물질문명의 발달과 별로 상관이 없다. 문제는 예수의 피로 속량 받지 못한 저들의 불행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과 사회로 번진다는 것이다. 누가 이 가련한 사람들을 보듬어야 하는가? 관제적인 도움은 한계적인 수밖에 없다. 진정 예수의 심장을 장착하고 그 박동소리에 맞춰 행동하는 자들만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담을 헐고 세상에로 나아가야 한다.

1. 예수께서 바라본 사역적

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인, 귀신들린 자,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5천명의 무리 등 착하고 건강한 99마리 양보다 잃은 양 한 마리에게 눈길을 주셨다. 왜 그리하셨을까? 주님은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마9:36) 배회하며 사망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저들은 이 세상에서 기별 언덕이 없었으며 누구보다 심령이 갈급하고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다. 이처럼 주님은 사역적 안목을 철저히 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셨다. 주님은 이

wiki에 따르면 동의보감(東醫寶鑑)은 “허준(1539-1615)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한국의 의학서적(한의학)을 하나로 모은 백과사전으로서, 1596년(선조 29)부터 편찬하여 1610년(광해 2)에 완성되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보 319호와 319-2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로서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동의보감”도 나왔다. 해당 책은 드라마작가인 이은성이 썼다. 발간 당시 대 히트를 기록했고, 이후 TV드라마 “허준”으로 만들어져 절찬리에

말이 막히면 그냥 물어버렸다. 교인 중에 누가 아프거나 시험에 들면 금식하기 일쑤였고 대부분 밤을 교회에서 철야하며 지새웠다. 가난한 시골교회인지라 건축이 필요했다.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어주겠다고 했다. 단 조건은 자기 교회의 이름으로 간판을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후맘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40일 금식기도를 선포했다. 우리는 건축을 다른 이의 돈으로 하지 않고 기도로 짓겠다고 한 것이다. 그들은 연장을 가지고 나와 손수 예배당을 완공했다.

양 좋고 권세 있는 99마리 양들 위주로 사역을 안배해야 한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다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일 리가 없다. 아니 그들이 사역 현장에 오면 오히려 부담스럽다. 우리 사역자들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나의 사역인가 아니면 주님의 사역인가? 만일 후자라면 우리는 세상의 사각지대에서 눈물 흘리며 고통 받고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의 심장으로 저들을 감싸 안으며 주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22) 바울의 아테네설교 정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다종교 사회에서 복음증거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에는 철학, 문학, 그리고 역사적 자료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헬레니즘의 심장 ‘아테네’에서 헤브라이즘의 진수인 “복음”을 전했던 이 설교는 탁월한 인문학적 설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페쉬는 아테네의 바울 설교를 세계 문학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F.F. 브루스는 신약에서 주석이 가장 풍성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테네 지도급 인사인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니시우스가 회심합니다. 유세비우스는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고 디오니시우스가 아테네교회 초대감독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디오니시우스는 고린도교회 감독을 거쳐 당시 대표적인 교회인 알렉산드리아교회 감독

면하였습니다(행18:5).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헬라를 이끌었던 도시였고 무역을 선도한 국제도시였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아시아의 아테네’였던 에베소 사역도 크게 성공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 초기에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니다. 이는 당대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빌려왔거나 그의 말을 활용했습니 다. 학자들은 바울의 아테네 설교에 세네카의 말이 다섯 번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세네카는 황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노예출신 철학자 에픽테투스 와 더불어 스토

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철학자들에게 스토아학파의 사상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철학을 만날 때 취할 태도의 모범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바울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라며 하나님을 논증합니다. 이 말은 세네카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헬라철학을 인용합니다.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서신들을 연구한 학자는 바울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세네카, 에피메니데스 그리고 아라투스 등의 헬라 시인, 철학자들의 시구와 문장을 24회 정도 인용했다고 합니다. 고향 다스에서 수준 높은 헬라 교육을 받은 바울은 철학자들에게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신대 신약학 교수인 한천설 박사는 바울의 아테네 설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설교다. 둘째,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과 상황에 맞추지만 복음의 핵심을 양보하지 않았다. 셋째, 구속사역에 대한 윤리적 결단을 촉구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했다.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바울의 아테네 설교는 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 복음증거의 모범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청중을 분석하고 청중을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현대는 다종교(多宗教) 사회입니다. 지나치게 상황에 타협한 설교나 지나치게 청중을 무시하는 설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상황을 고려한 상황화(Contextualized)된 설교는 힘이 있고 청중에 대한 배려는 감동을 얻게 합니다.

chap1207@hotmail.com

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 복음증거의 모범적 설교 청중 분석 존중 배려하나 복음의 본질 양보 안해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마틴 디벨리우스 교수는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설교가 탁월한 헬라적인 설교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정점(Climax)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테네 설교를 극찬하면서도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결실자도 적고, 교회도 세워지지 않아서 실패로 규정합니다. 이런 디벨리우스의 입장을 따르는 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아

이 됩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유력한 교회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 선교는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바울의 아테네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테네의 경향이 다른 사역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아테네를 닮은 도시 고린도 선교에 큰 결실을 얻습니다.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

성령님께서 마케도니아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로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역 후에 최종적으로 아시아의 심장인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와 소아시아 선교를 묘사하는 행19:26을 주목합니다. “(전락)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라(후략)”라는 구절은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사용했던 말씀(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행17:24b)과 유사하

아를 대표하는 학자입니다. 여러 이유로 세네카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당대에 가장 설득력 있는 세네카의 명문장을 인용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설득합니다. 문화적 자부심에 충일했던 아테네 철학자들과 시민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신들보다 세네카를 더 잘 아는 바울의 논리에 감복하였

참신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순식간에 바울은 스토아학과 철학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그들의 신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학과 사람들은 세네카의 말로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철학적 논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몇 신학 신학자들은 헬라 철학을 사용한 바울을 연구했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포도원 주인은 누구인가?(눅20:9-18)찬450장

포도원 비유 속에 보여진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첫째,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9). 포도원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세상에 세워진 구속받은 교회를 가리키며 그 교회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인자를 영접치 않은 유대인들은 포도원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나 인자 안에 거하는 신자는 항상 모든 부요를 누립니다. (요

17:3). 둘째, 포도원을 관리하는 일거리를 주셨습니다(9). 포도원과 그 일거리의 가치를 바로 알면 일할 의욕이 생기고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때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복됩니다! 셋째, 그는 소출을 기대하십니다(10). 주님은 우리로 교회생활에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생활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나타내십시오.

화 포도원의 종들은 누구인가?(눅20:9-18)찬231장

주수 때에 주인이 보낸 세 종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그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입니다. 세례요한 이전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바로 포도원인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성경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을 사랑하고 그의 인도를 받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 세를 받으

었다 때를 맞고 배척을 당하는 일은 세상 속의 교회가 그만큼 세상과 타협함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은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과 함께 핍박을 각오하는 포도원의 종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수 농부의 악한 태도(눅20:9-18)찬197장

포도원을 맡은 농부는 당대 유대인을 가리키며 오늘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을 가리킵니다. 첫째, 그들은 종들을 핍박했습니다(10-12).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는 그들의 악함은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당할 고난입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의 길은 교회가 걸어야 할 종의 길입니다. 둘째, 그들은 아들을 죽였습니다(15). 세상에 있는 교회가 타락하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는 자리

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있는 교회가 환난을 당하나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버려진 돌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은 진멸을 당합니다(17). 주의 뜻을 이루는 불의의 도구지만 그들은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한 자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목 일곱 영이 일하는 시대(눅11:14-26)찬175장

일곱 귀신이 활동하는 우리시대에 주님은 일곱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째, 귀신을 쫓아냄이 그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상징이 실체를 보여주듯이 귀신이 도망가는 일은 그 나라가 실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임한 그 나라 왕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에 마귀는 도망가고 새 역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더 강한 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마귀와 죄악과 육체의 소욕을 모두 처리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마귀가 들어와 진을 치려할지라도 더 강한 신 안에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내 속의 강한 죄악의 소욕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갈5:24).

금 종말을 이기는 지혜(눅21:1-15)찬167장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시대에 어떤 지혜로 살아야합니까? 첫째, 주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종말의 징조를 가르치실 때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반복적 표현은 그 확실성 때문입니다. 여러 징조 속에 거짓교훈의 범람이 일어나기에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시는 길입니다. 둘째, 그 때를 통과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방범이 아닌 하나님나라의 방

범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15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말을 잘 지나는 것은 가난한 마음(마5:3)으로 성령의 지혜인 성경말씀을 묵상하며 거기에 숨기를 잘해야 합니다. 성경만이 종말의 환난을 피할 피난처이며 기근의 때에 먹을 양식이며 혼란 때에 불을 지혜이며 흑암의 날에 갈길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토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눅23:46)찬147장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주님의 절규는 구속의 완전성취를 선포하십니다(눅23:46). 이것으로 모든 구약 예언과 교훈들과 사건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원히 나타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믿고 내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누가는 그 죽음을 3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가가는 길이 이뤄진

것을 보였습니다. 이 길을 향해 가가는 자는 살아나고 새로워집니다(히10:20). 둘째, 백부장과 주변사람들로 주님의 마지막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멀리서 여러 남녀들이 목격케 하심으로 죽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더욱이 시신을 장사한 요셉을 죽음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죽음을 의지하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과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음악 이야기(9)



윤임상 교수 (원세대학교대학원)

팔레스트리나와 교황 마루첼루스 미사곡(Pope Marcellus Mass)

오늘날 교회음악은 다양한 세속음악이 교회음악과 합쳐져서 교회음악의 세속화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을 걱정하기에 앞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회음악의 탐미주의와 교회음악인들의 영적 성숙입니다. 오늘날 교회음악이 점점 더 예술적 미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교회음악의 본질이 상실되어간다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 찬양을 드릴까? 하는 그 본질적 문제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에 관심과 초점이 더 맞추어져가는 오늘날의 교회음악이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개선되어야 할 요소를 찾기 위해 '미사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16세기 위대한 작곡가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1523년경-1594)를 통해 교회음악의 본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다성음악의 참된 가치를 공의회에 확인시켜 다윗의 2가지 지침 "구별되이" "신령한 노래"

교회 역사를 보면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에서 1545-1563년 이탈리아 북부도시 트렌트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소위 반종교개혁(counter reformation)이라 하는데 이때 가톨릭교회 스코로가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부패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변화를 추구하는 자성의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제 들 중 하나가 바로 음악에 관한 심각한 자아비판이었고, 바로 그 회의의 세 번째 마지막 세션인 1562-1563년 사이에서 교회의 다성음악 사용에 대한 논의를 하며 두 가지 중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음악 가사에 세속적인 노래들 즉, 권주가나 사랑에 관한 멜로디들을 이용해 교회음악 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불평으로 인해 순수한 교회음악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크게 발전하고 있는 다성음악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다보니 가사를 위한 음악이 아닌 음악을 위한 가사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가사를 잘 알아들을 수 없다는 비판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음악으로 전제되어 교회음악의 본질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공의회에서의 많은 여론은 지금까지 발전되어온 다성음악을 뒤로 하고 단선율의 음악 즉 9세기 이전의 음악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성처럼 나타나 이런 이론들을 반박하고 기존의 다성음악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음악가가 바로 미사 음악의 아버지라 칭할 받는 팔레스트리나였습니다. 이 팔레스트리나는 이름은 그가 태어난 로마근교의 작은 마을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잠시 성가대원과 오르가니스트로 있었지만 대부분의 생애는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로마교황청과 로마 지역교회 성가대원과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교회악장으로 지

냈고 1571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성 베드로 성당의 교회악장으로 봉직하였습니다. 팔레스트리나는 교황 마루첼루스(Pope Marcellus Mass)라는 표제를 담은 "6성부 미사곡"을 작곡하여 다성음악 양식이 가사를 이해하는데 결코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이 음악은 트렌트 종교회의의 기간 중에 불려졌는데 신비로움 만큼 철저한 협화음과 선율의 순차진행을 갖고 가사와 음악이 일치된 카논(돌림노래 형태)과 호모포니 구조를 적절히 배합해서 가사가 정확하게 들리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기량으로 만들어진 가장 순수한 영적 멜로디인 찬트를 선율로 사용하여 영감이 넘치는 음악으로 만들어 들려줌으로써 다성음악이 지니고 있는 참된 가치를 공의회에 확인시켰고 나아가서는 다성음악에 적대감을 갖고 있던 반대자들을 침묵시켰던 것입니다.

팔레스트리나는 이렇게 해서 당시 발전되어온 다성음악을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교회음악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진정 당시 뛰어난 기량을 갖춘 탁월한 음악인으로 성숙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훈련하며 최상의 노력을 기울였던 위대한 음악인이자 깊은 신앙의 소유자로 영적인 일에 아주 민감했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최초로 교회음악 기관을 세우고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부탁했습니다. 첫째는 "구별되이 섬기라"는 말이다.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말은 구별되이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음악인들은 탁월한 음악성을 갖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예술세계를 아름답게, 창조적이고 깊이 있게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음악인들은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각자에게 맡겨준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해야 합니다. (15면으로 계속)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2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2)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Exam Subjects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Deuteronomy 6 : 1 - 9
 - 2) NT Exegesis Text : 2 Corinthians 5 : 11 - 21
 - 3) Thesis Topic : Pastoral Ministry Centered on Reformed Worship in the Pandemic Era.
 - 4) Sermon Text : O.T- Psalms 95 : 1 - 8, N.T- Romans 12 : 1 - 2 (choose one)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①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②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③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④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⑤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KisungSon-OTExegesisPaper.pdf)
 - c) Oral Interview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22.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2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b)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c)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10-13, 20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a) Dates : May9(Mon)-10(Tue), 2022
- b) Place :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Vice Moderator Rev. Timothy Hong)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Accompanying Documents

- a)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through June 30 of 2022.
- b)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c)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d)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e)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f)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g) Fee: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WGPC

Miscellaneous Information

- a)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9-10, 2022) through Rev. Kisung Son.
- b)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제출처

Rev. Kisung Son
Address :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Cell : (703) 725-6468 E-mail : 663927@gmail.com

기타문의

- a)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John Y. Song (818) 282-0112 kapcpastor@gmail.com
- b)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Kisung Son (703) 725-6468 663927@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오세훈 목사
서기 :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 송일용 목사
고시부서기 : 손기성 목사

원로칼럼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땅만 크면 대국(大國)이나?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손기정 마라톤 선수가 우승했다. 그리고 한국 선수 남승룡은 3등을 했다. 이 일로 일제의 침략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하고 침체된 우리 민족에게는 그들의 승리의 감격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국적은 Korea가 아니고 Japan이었다. 한국이 독립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IOC는 손기정 선수를 일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IOC의 규정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손기정을 일본인으로 우기고 뭉개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정지다.

필자에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우승자 손기정 선수의 우승엽서가 칼라로 된 것이 있다. 아마도 손기정 선수가 시상대에서 칼라로 찍은 사진은 그것이 유일하지 않나 싶다.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보면 얼굴에는 우승자의 기쁨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죄스러워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는 애써 월계수로 붉은 일장기를 가리려고 했지만 잘 안되었다. 당시 동아와 조선일보 기자는 밤에 몰래 그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려다가 큰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 일로 신문사들은 폐간되거나 정간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올림픽 정신은 숭고하디나 인류의 평화를 들먹이지만 고대올림픽도 근대올림픽도 모두가 정치와 정권과 관련되어있다.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 흘려왔지만 따지고 보면 올림픽도 전부요 전쟁이다.

지금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중국의 '중화상상'을 만천하에 펼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이 중국이 최고라는 것을 시위하기 위한 공작이었다. 더구나 중국 공산당은 올림픽 개최식을 통해 46개 다민족이 오성기 붉은 깃발을 이어받는 자리에서 '한복'을 입은 여자도 있었다. 이자들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주변 국가들을 모두가 중국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다.

이번 올림픽은 '중국의 전국 체전'에 세계가 들러리 선 풀이다. 쇼트트랙 경기만 해도 그렇다. 앞서가던 한국선수는 모두 탈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승전에서 1등을 했던 헝가리 선수에게도 패널티를 적용해 메달에서 제외시켰다. 한마디로 중국 그들만의 리그를 하면서 그동안 피와 땀을 흘리며 운동했던 선수들의 메달을 도적질하면서 '대륙의 절도범'으로 편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나라이고, 공산주의 나라이고. 언론의 자유가 없는 일사불란한 통제 사회이다. 그러니 중국의 모든 선전과 통계는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G2국가라고는 하지만 미국이나 한국 등 선진국의 기술을 도적질하고 도용하여 만든 이른바 '짝퉁의 나라'이다. 헝가리 출신의 미국의 저명한 조지 프리드만 박사는 그의 정치, 경제, 외교 싱크탱크인 '스트랫포'에서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은 이제 부상(rise)이 아닌 붕괴(Collapse)를 생각해야 한다. 중국인구 14억명 중에 6억은 하루 3달러로 살고, 4억은 4,000명은 겨우 6달러로 산다. 연간 2만 달러를 버는 중국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중국의 5%에 불과하다"라고...

이러한 중국이 이번 올림픽에 생사를 걸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은 장기집권을 위해 이번 동계올림픽을 '지상 최대의 쇼'로 연출을 했

다. 시진핑은 이번 북경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강,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것을 과시하고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술수를 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원수들이 불참했는데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뿔마니들이 눈도장을 찍으러 왔다. 지금은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북경의 올림픽을 어찌하든지 무사히 치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주변의 도시 자체를 철저히 봉쇄하고, 격리하면서 이른바 '제로 코로나'란 의미의 '정링(清零)정책'을 쓰고 있다. 인구 1300만 명의 시안을 강제 폐쇄시킴으로 시민들은 생활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셈이다.

중국의 시진핑의 목표는 "북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함으로 전 세계에 중국의 위대한 힘을 과시하고, 중국 공산당의 최종 목표를 위해 진실을 철저히 감추고 있다. 중국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없다. 이런 나라에서 힘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복, 아리랑, 김치 등 대한민국의 전통을 자기들 것으로 편입하려는 참 치졸한 자들이다. 중국은 수천년 동안 우리를 소국(小國)으로 취급하고 우리에게 전혀 도움 되는 일이 없었다. 6.25때만 해도 중국은 김일성을 도와 인해전술(人海戰術) 우리의 통일을 막은 원수의 나라이고.

올림픽의 금메달이 참으로 좋기는 하지만 세계 공산주의 종주국인 중국의 비인도적 체제선전장에서 세계 젊은이들이 자웅을 겨루는 것이 참으로 안쓰럽다. 그동안 중국은 공산당에 방해가 되는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회 참담을 포크레인으로 부서버렸다. 중국은 신앙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인권(人權)도 없기에 세계는 중국을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자고 아직도 우리나라 집권층의 인사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중국의 눈치와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올림픽은 인류의 위대한 평화의 제전이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행사도 공산당이 하면 그것은 추하고 더러워진다. 한국에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공산주의 사상을 동경하는 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땅만 크면 대국(大國)이나?
sk0727@yahoo.com



뉴저지말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장애인들이기에 전해야 할 복음" (23)



2. 장애인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압바, Abba"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어린 아이 혹은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사용하거나 스승이나 아버지의 친구에게는 사용했으나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애정용인 "압바"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는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두기도문 등에서 제자들도 하나님을 압바로 부르게끔 가르치셨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 경외심, 의존감을 표현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장애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이다.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자신도 자신을 무시하는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존감이 회복된다. 그리고 장애인 부모는 장애인 자녀를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된다.

래와 같이 설명한다. "예수는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양 무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들의 죄인을 찾고(눅15:1-32) 죄사함을 나누어 주며(눅5:17-26) 죄인 및 세리들과 식탁 교제를 즐기는 것(눅15:27-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 경외심, 의존감 표현 Abba로 부르게 하심 차별 소외당하는 장애인들에게 친구되시는 예수야말로 기쁜 소식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 볼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됨을 중계해 주는 분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 김세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의 독특한 abba 호칭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써 자신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든다는 예수의 자기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의 abba 호칭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는 자기 제자들에게의 가르침은 '그 사람의 아들' 오서의 예수의 자기 호칭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훌륭히 확증해준다. Abba 호칭과 '그 사람의 아들'이란 자기 칭호는 예수의 독특한 언어 사용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이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자기 이해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들이다."

장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나중에 그에게서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3.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베푸시는 예수

당시에는 부정하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Defilement by association)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접촉을 꺼렸다.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했다. 오히려 그들과 접촉함으로 그들을 깨끗이 하였다(Sanctification by association). 이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대권 행사를 행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예수의 의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김세윤 교수는 아

32)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목자 역할을 한다. 예수가 죄인들이나 세리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메시아 잔치 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구원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표적 행위이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함께 어울려주는 친구도 없다.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형제들의 결혼도 막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장애인들에게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야말로 기쁜 소식이다. 예수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차별과 소외가 사라지고 있다.

교회음악 이야기

<14면에서 계속>
두 번째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였습니다. 영적인 찬양을 준비하고 훈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려는 노력과 함께 육신에 따라

살지만 육신으로 행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이 인정하는 음악인이 아닌 하나님에 인정하는 음악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작곡가 팔레스트리나는 교회음악이 예술적으로만 치우쳐 아름다운 미술 교회음악에서 배제시키려는 당시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려놓

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위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음악인이 되어야 할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일에 고민을 갖고 있던 인물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음악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iyoon@wmu.edu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2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신명기 6 : 1 - 9
- (2) 신약주해: 고린도후서 5 : 11 - 21
- (3) 논문제목: 펜데믹시대 개혁주의 예배를 중심으로 한 목회전략
- (4) 설교본문: 구약 - 시편 95 : 1 - 8, 신약 - 로마서 12 : 1 - 2 (중 택일)
-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를 사용 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c.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2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6회 총회기간(5월10일 - 13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2년 5월9일(월)-10(화)
장소: 다민족교회 (부총회장 홍귀표 목사 시무)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2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Pay to the order : WGPC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손기성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9-10일)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실하기 전 지울 것.
 -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당할 수 있음.
 - (3)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주소 : 4008 Lake Glen Rd. Fairfax, VA 22033 U.S.A.
전화 : 703-725-6468 / 이메일 663927@gmail.com

기타문의

- a) 고시부 부장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kappastor@gmail.com
- b) 고시부 서기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오세훈 목사
서기 : 장성철 목사
고시부부장 : 송일용 목사
고시부서기 : 손기성 목사

잘 지은 '작은 집', 이제는 대세다!

BBC,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타이니 하우스 운동' 소개/현황 보도

주거 디자인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매우 작은 집이 주거의 미래로 떠오르며 '작은 집 짓기 운동'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서구권에서 '타이니 하우스 운동'은 아주 작은 집을 지어 공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회운동을 말한다.

'#tinyhouse' 해시태그를 단 250만여 개의 인스타그램 포스트, 넷플릭스의 '도전! 협소주택(Tiny House Nation)' 같은 TV 시리즈와 다큐멘터리, 영국의 건축가이자 TV 진행자인 조지 클라크가 이 주제를 다룬 시리즈들이 인기를 방증한다.

타이니 하우스 운동의 뿌리는 19세기 미국의 자연주의자 및 수필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책 '월든'(1854)은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사는 삶에 대해 많은 영감을 주었다. 바위가 달린 작은 집을 만들고 책 '스몰 하우스 북'을 저술한 제이 샤퍼는 "타이니 하우스의 대부"로 불린다. 이후 사회정의와 주거권 문제에 집중할 샤퍼는 '팁블워드 타이니 하우스 컴퍼니'라는 회사도 설립했다.

타이니 하우스 지지자들은 이러한 주거형태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영국 기업인 '타이니 하우스 컴퍼니'에 따르면 타이니 하우스는 건축자재도 덜 들 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영국 주택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30%만 사용한다.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이동성을 고려해 설계됐기에 자연과 가까운 곳에 짓기도 쉽다. 경제적이고, 이동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이고, 공동체 친화적이고, 담보 대출이 필요 없는 집.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크리스 마치는 영국 노섬버랜드에 있는 '타이니 에코 홈즈'의 설립자다. 자신이 설계하고 소나무와 삼나무를 이용해 만든 집에 3년째 살고 있다. 7m x 2.5m 면적, 윗층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높이를 갖춘 2층집, 2개의 침실이 특징이다. 그는 "이 집은 내 아들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집"이라고 말했다.

마치의 회사는 해마다 타이니 하우스를 15채 정도 짓는다. 그중 한 채를 데이비드 웨스트우드 가족이 5만 파운드(약 6만8천4백 달러)를 주고 구입했다. 이 가족이 촬영한 비디오에는 아들 조스가 일어설 때 침실 천장에 머리가 닿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들은 "전통적인 집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들은 처음에는 500 파운드 가량의 월세를 내는 캠프장에 이 집을 세웠다가 이후 토지 임대료가 필요 없는 부모 소유의 정원으로 집을 옮겼다.

이 운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는 분명 테슬라의 수장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 사업을 하면서 텍사스 보카치카에 있는 작은 집을 임차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트위터에 "작은 집에서 사는 게 더 집다운 느낌이 든다"고 썼다.

소비자상주의의 대척점에서 미니멀리즘과 비워내기가 시대의 정신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타이니 하우스 운동도 걸 맞는 때를 만난 듯하다. 공간과 물건을 더 적게 소유하면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한 여백이 생긴다는 주장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Why the tiny house is perfect for now).

다. 3분의 1 가격으로 새 집을 갖는다니 고민할 필요도 없죠." 타이니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생활방식과 가치의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 지역공동체와의 유대감 강화, 환경보호, 가족과

이들이 타이니 하우스 거주를 이야기하지만 아주 극소수만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타이니 하우스 산업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 1만 명이 타이니 하우스에서 사는 것



“공간과 물건 더 적게 소유하면 보다 중요한 것 위한 여백 생긴다” 지역공동체 유대감 강화, 환경보호, 가족간 친밀감... 비용축소 이점 비해 신용대출 불가 등 난점도 있어

토지 비용은 타이니 하우스 구입 시 주요 고려사항이다. 마치는 자기 땅에 집을 지었고 그곳에 영구 거주할 권한을 취득하려 노력중이다. "저는 '평범한' 집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집은 20만 파운드 가량이 필요하죠. 그런데 타이니 하우스는 6만 파운드 정도면 됩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열망, 비용축소 등이 삶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다.

물론 작고 매끈한 디자인이 좋아서 작은 주택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 타이니 하우스 거주자는 아직 200명 정도에 불과하다. 마치는 "많은

으로 추정된다. '아메리칸 타이니 하우스'의 에이미 턴볼 이사는 원에 매겨진 '스프루스(The Spruce)'와의 인터뷰에서 "타이니 하우스 운동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를 선호함에 따라 타이니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 프런티어 디자인'의 CEO 데이비드 라티머는 2020년 스프루스 시상식에서 가장 화려한 소형 주택 건축가로 뽑혔다. BBC 컬처는 단순한 디자인에 목재와 식물로 꾸민 캘리포니아 베니스 비치 소재 스튜디오에서 라티머를 인터뷰했다.

라티머의 삶의 철학은 "목적 을 갖고 살자"다. 그는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유행처럼 번지던" 2015년에 회사를 설립했다. 그의 회사는 한 해 보통 12-16채의 타이니 하우스를 판매한다. 판매하는 집은 5종이다. 이중 '알파'는 자연광이 들어오는 큰 유리문에 두 개의 세면대를 설치한 "이상적인 커플의 집"이다. '에셔'에선 6명이 10인용 식탁과 욕조를 갖췄다. 라티머가 설계한 집에는 공간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다양한 가전제품이 들어간다. 여기에 공간 절약형 가구는 그가 만든 타이니 하우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라티머는 2017년 TV쇼 '굿 모닝 아메리카'를 통해 캘리포니아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집을 짓기도 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 훌륭한 성과다. 하지만 그는 이제 겨우 초기 단계인 이 산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양하다. 장성한 자녀를 독립시킨 부모세대나 은퇴세대도 많지만 전문직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도 많다. 모두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환경을 원하는 이 들이다. 타이니 하우스를 일상 의 주거지로 삼으려는 이들과 별장으로 사용하려는 이들은 반반이다. "생활방식선택의 문제입니다."

타이니 하우스 운동은 가치 지향적인 세상을 꿈꾸죠." 지속 가능성은 타이니 하우스를 선택하는 많은 이들이 중시하는 가치다. 태양광이나 풍력, 퇴비를 만드는 화장실 등을 사용하게 타이니 하우스는 탄소 발자국이 매우 작다.

라티머는 팬데믹이 이 시장에 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도시의 갑갑한 삶에서 벗어나 다시 자연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들에게 타이니 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났 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존재감을 경험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자유를 원했다고 말했다.

"이 삶은 친밀감도 크고 아늑하며 편안하고 따뜻하죠. 하지만 작은 주택은 모두를 위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일정한 희생과 생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고객은 타이니 하우스를 계약 하기 전에 충분히 많은 조사를 하고 찾아옵니다."

잠재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이 회자되며 타이니 하우스 운동이 잔 걸음을 내고 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출신의 앨런 맬은 직접 타이니 하우스를 지었다가 뉴질랜드 캔터베리 의회와 소송을 벌였다. 당시 그가 만든 집은 50대의 중년인 그가 마련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졌고 이것이 뉴질랜드의 다른 타이니 하우스 소유자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에 대한 흑색 거짓말...

(2면에서 계속)

도시변증학(urban apologetics)이란 무엇일까? 도시(urban)는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며 지난 45년 동안 꾸준히 그 사용이 증가해왔다. 도시변증학에서의 도시는 실제 도시를 가리킨다. 그것이 속어로 사용되기 전에-도시-라는 용어는 사람, 건물, 교통, 다양한 문화, 상업, 정치, 그리고 영성의 다양한 혼합으로 정의되는 여러 가지

가 집중된 복잡성의 함축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에 선을 긋는 순간 도시는 흑인, 황색인종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가 됐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기준이다. 회사에서 도시와 관련된 부서는 제품을 흑인과 황인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힘 합과 같은 예술형식의 급증하는 인기로 인해 도시문화가 더는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말이다. 이것은 시골과 교외에서도 접하

는 모바일 문화가 됐다.

변증학(apologetics)은 베드로 전서 3장15절에서 유래된 용어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개역개정). 이 구절에서 '준비'로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apologia이다. 본문의 문맥에서 변증학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변혁을 보여줌으로써 마음과 감정의 의지를 이끌어낸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종말론적이고 궁극적 소망

에 근거한 복음의 합당한 준비(방어)다.

유다서 1장 3절은 변증학의 성경적 기초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핵심 본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개역개정). 여기서 "힘써 싸우다"라는 단어는 레슬링 경기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그리스어 epagonizomai

를 번역한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 연관성을 암시한다. "이 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개역개정).

변증학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고전적(Classical) 변증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강조한다. △실증적(Evidential) 변증학은 합리성, 역사, 고고학, 심지어 경험을 사용해서라도 기독교 진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역사적(Historical) 변증학은 기독교 진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증거를 강조한다. △경험적(Experiential) 변증학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서 초자연 현상과 같은 일반적인 종교적 경험이나 특별한 종교적 경험에 호소한다.

△전제론적(Presuppositional) 변증학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전제로 하고 이후 기독교만이 이치에 맞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 준다.

(다음 호에 계속)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순삭성경 Hisfinger Media

좋은책 읽어주는 그레이스타임

“신림”가 중요한 4:30

싸움에서 이기려면 00해야 한다?! 4:18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남자! 4:27

No thank you, 미안하니 4:53

우리 식당 해마다 일을 맡아주게 4:43

"말씀 적용" 그리스도 "행복 훈련"

구독

HIS FINGER media | kpop

좋아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스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